

정치혁신 - 法治확립 가장 급하다

光復 70주년 -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은 앞으로 후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정치혁신과 법치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치개혁을 위한 처방으로 임기4년제의 대통령중임제와 국회의원 후보 국민경선제를 실시하고 전국구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지정, 거국적으로 축하 기념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7월14일 한국프레스센터19층 엠바고 룸에서 광복 70주년을 맞아 원로 특별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올 한해 대한언론의 어젠다인 '나라 바로 세우기'를 위한 현실진단과 처방책 모색의 기회이기도 했다.

문명호 대한언론인회 주필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에는 송복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택휘 동원학원 이사장, 최서영 본회 자문위 의장(전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사장)이 참석했으며 김은구 대한언론인회 회장이 참석, 인사말을 했다.

송복 교수는 "광복 70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탄생부터가 기적"이라고 전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건 이승만대통령의 정치수완에 기인하며 박정희 대통령시대의 산업화를 거쳐 역사적으로 가장 가치있는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정희의 성장정책이 성공모델이라해도 더 이상 장기 답습할 수 없고 1990년대 민주화 시대 이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모델이 나와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정책대안을 강구하는

송복 ·본회 회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이택휘 ·동원학원이사장 ·전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최서영 ·본회 자문위 의장 ·전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사장
(가나다순)
사회: 문명호 본회 주필

정리: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사진: 이철영 본보 편집위원
때: 2015년 7월 14일 곳: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 룸

민주화이후 새정책모델 개발 절실



왼쪽부터 송복 교수, 최서영 의장, 이택휘 이사장.

2·3면에 좌담내용 지상중계

정치적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택휘 총장은 건국기념일을 지정해 축하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을 제정해 거국적으로 축하 기념해야 하며 심각한 역사교과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서영 전 코리아헤럴드·내외경제사장은 우리 민족이 다른 분야에서는 뛰고 나는 기술과 재주를 가졌는데 정치는 후진국 수준이어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타개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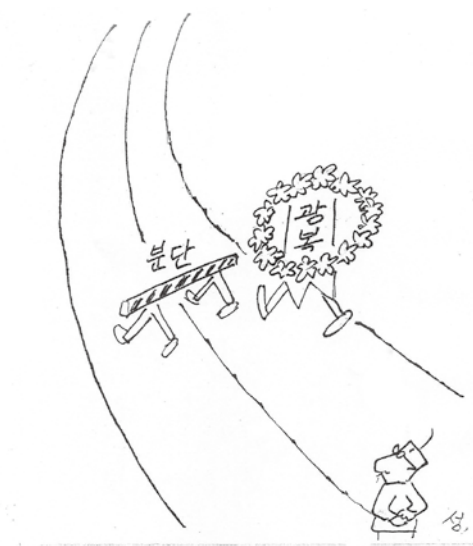
세 원로 모두 대한민국은 지난 70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없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국가로서 역사적 법적 정통성을 갖고 있다는데 입을 모았다. 그러나 포퓰리즘 문제와 이념갈등문제가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그 타개책으로 정치리더십과 법치주의 확립이 절실하다는 데도 같은 의견임을 나타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있으나마나고 취약하기 때문에 법치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은 10년에서 3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역사교육을 이념적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되며 국제관계는 도덕적 측면보다는 국가이익과 안보차원의 유불리(有不利)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금부터 30년 뒤 광복 1백주년 무렵에는 대한민국이 통일돼 있으며 통일에 따른 후유증을 수습하는데 어려움을 겪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융성한 나라로서 중국 일본과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동북아 3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K]

고바우 만평

김성환 (본회 원로회우)



영욕 70년의 길

2015 '대한언론상' 주인공을 찾습니다

시상일 추후공고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회장 김은구)는 언론발전에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주는 2015년도 대한언론상(제25회) 수상 후보

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수상자는 2015년 10월 1일자 '대한언론'에 발표)

〈공모요령〉

- * 분야 : 1) 기획취재 보도 분야 2) 논설 논평, 언론 학술 연구분야
- * 대상 : 일간신문 통신 방송 등 언론사 및 언론 관련단체 또는 개인
- * 공적기간 : 2014년 9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
- * 구비서류 : (개인) *이력서 *사진 2장(명함판) *세부 공적내용(A-4용지 2 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소속 단체장 추천서(A-4용지 1페이지 이내로 작성) 1부
(단체) 단체장 추천서 1부 * 공적 자료 및 관련 사진 첨부
- * 접수마감 : 2015년 9월 15일 오후 5시
- * 시상일 : 추후 통보
- * 접수처 :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프레스센터 1405호 대한언론인회
(우100-745)전화 02) 732-4797~8, 02) 2001-7621

2015년 8월 1일

社団法人大韓言論人會

대한민국 正統性 기릴 ‘건국절’ 제정

光復 70주년 좌담 —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문명호 2015년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한언론인회가 정한 올해의 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를 갖고 특별좌담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소사고와 질병 등 재난이 잇달아 발생하고 각 분야에서 심한 갈등과 분열 현상을 나타내 나라 전체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원로 세분을 모시고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한 진단과 그 치유책,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 정체성 문제부터 짚어 보았으면 합니다.

최서영 우선 총괄적인 문제제기부터 하겠습니다. 광복과 분단 70년, 6·25전쟁 65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삶의 질에 있어선 선진국 문턱에 가까이와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경영하는 정치의 후진국 수준이어서 개탄스럽습니다. 조선조(1392~1910) 500여년 동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같은 국란을 겪고도 그 후에 달라진 것이 없이 언제 그랬느냐는 듯 다 잊고 지내다 결국 망해서 일본 식민지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치는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정치이외 부문에선 뛰고 나는 기술과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치를 할 줄 모르는 DNA가 우리 민족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서울 도심에서 주말마다 시위 없는 날이 없고 교통두절이 다반사입니다. 나라 전체가 평온할 날이 없이 어지럽습니다. 언론이라도 중심을 잡아주는 축으로서 제 구실을 해주어야 하는데 일부 허위 편파 보도로 혼란을 가중하고 분열갈등을 조장합니다. 국가경영기술로서 정치가 형편없기 때문인데 이제라도 그 타개책을 찾아야 합니다.

송 복 해방과 남북분단 이후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역사 정통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적으로 역사적 법적 정통성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정통성 결정요인은 국가지속성과 국가발전성입니다. 광복 70년을 돌아보면 대한민국은 기적의 나라입니다. 탄생부터가 기적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달성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로당 마지막 총책 박갑동의 남로당 분석 자료를 보면 1945년 10월 이승만 귀국 때 이미 남로당의 세포조직과 세력이 남한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9월에 남한 땅을 밟은 미군은 소련과 달리 남한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세우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시민의식조사 결과 조사대상 시민의 77%가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를 해야 한다는 정치지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들어설 수 있었던 건 이승만대통령의 정치수완에 기인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대통령 시대의 산업화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가치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역사적 법적 정당성을 훼손 파괴 소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이 광복 70주년이 갖는 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택휘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7주년입니다. 건국의 의미는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고 건국기념일도 없습니다. 1948년 8월15일은 자유대한민국 건국일입니다. 또한 이승만박사가 초대 건국대통령입니다. 현대국가치고 건국기념일을 축하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국제공법상이나 정치적으로 보아 그 정통성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유엔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전국민이 대한민국 건국과 건국대통령을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가정통성을 강화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파란만장한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성취에 어느 정도 성공했고 경제적 수준은 선진국 문턱 내지는 대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이스라엘과 한국 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내부요인 때문에 위기의식을 갖지만 결코 취약한 나라



송 복 교수



이택휘 이사장

이승만 건국대통령 정치적수완 평가 마땅

포퓰리즘-이념갈등 정치리더십으로 해소해야

法治전통 세워야 공정한 경쟁체제 정착 가능

가 아닙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인프라스트럭처가 상당히 구축돼 있어 정치혼란이나 사회갈등이 심화하더라도 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문명호 사회 안보 경제 교육 언론 등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택휘 미국 같은 거대 선진국도 그렇고 어느 사회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적 갈등은 다 있습니다. 최근 국가부도에 직면했던 그리스와 라틴 계통 선진국들이 사회복지 만능국가가 되다 보니까 결국 국가파탄 위기에 직면해 사회갈등을 겪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처음부터 계산을 잘 했으면 좋는데 포퓰리즘에 휩쓸려 준비되지 않은 사회복지가 지나치게 확대돼 사회적 불평을 심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국가능력이 되지 않는데 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갈등요인이 됩니다. 또 하나는 지하에 잠재해 있다가 민주화와 더불어 지상으로 올라온 대내적 이념갈등 문제입니다. 이념갈등 문제는 다수가 소수에 의해 끌려가는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이 문제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포퓰리즘 문제와 이념갈등 문제가 사회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러나 최 선생 말씀처럼 유능한 정치 리더십이 확립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송 복 우리는 근대사회를 거치지 않고 현대사회로 넘어왔습니다. 근대사회란 합리적 사고와 규율이 몸에 밴 사회입니다. 근대가 없다는 말은 정치전통과 법치(Rule of Law)전통이 없는 사회라는 말과 같습니다.

조선조 500년 내내 정치는 바르게 하면 되는 것이란 말 이외에는 실제로 아무런 정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하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이에 대한 현대식 개념전개(Concept Development)가 없었어요. 정치란 근대적이나 현대적 의미에서 타협의 기술입니다. 타협은 내 의견 주장과 다른 사람의 그것을 절충해 서로 이해득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본령이고 요체입니다. 이러한 타협의 정치부재는 500여년 동안 뿐 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적 잣대인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법치전통이 없이 자신의 호오(好惡)에 따라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현대사회란 부조화와 갈등구조를 내포합니다. 갈등은 곧 싸움입니다. 좋게 말해서 경쟁이고 나쁘게 말하면 알력 반목 투쟁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이고 각자 각자가 다 주체입니다. 전통사회에선 임금 한 사람만이 주체고 북한사회에선 주체사상 하나만이 주체입니다. 각 주체가 이익을 경쟁하다 보니 현대민주사회는 본질적으로 싸움하는 구조로서 정치와 법치를 통해 통합조정에 가야 합니다. 정치와 법치전통이 없다 보니 싸움하는 그대로 굴러가 최 선생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민족은 정치 미숙 DNA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봅니다. 조선말기 유명한 학자인 이견창(李建昌·1852~1898)이 당쟁을 분석한 당의통략(黨議通略)에서 패거리로 나뉘어 싸움하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위기를 겪고 그런 부조리 모순 원죄를 극복하면서 가치있는 나라를 만들어 조선조나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힘이 그렇게 만들었고 앞으로는 무슨 힘이 이 나라를 끌고 갈 것인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최서영 1880~90년대 무렵에 나온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나 서재필의 독립신문 등에서 날 짜만 바꾸어 놓으면 오늘날에 적용해도 좋을만한 똑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개탄했던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신채호의 신문기고문을 보면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됐나, 한심한 공리공론 허례허식 당파싸움에 찌들어 나라를 망쳤다고 한탄했습니다. 박은식은 신유교구국론을 통해 유교가 나쁘게 아니니 유교를 새롭게 해석하는 운동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나쁘다는 각도에서만 얘기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조선왕조시절 왕에 올리는 상소문을 보면 상대방에 대한 아량은 찾아볼 수 없고 아주 고약한 표현으로 상대방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식입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선대에서 원수간이라도 후대로 내려오면 어떻게 타협하고 악수해야 하는데 할아버지때 분열요인이 3개였다면 증손자 때엔 그것이 30개로 불어납니다. 정치부 기자 시절 YS(김영삼) DJ(김대중)를 만나 얘기해 보면 민주주의만 되면 모든게 다 해결된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하려면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고 타협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 요소가 없는 한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고 오히려 혼란만 조장한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과연 그들이 집권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공부를 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할 때 우리 조상이나 선각자들이 개탄하고 고치자고 주장했던 사실을 광복 70년 동안 얼마나 이행했는지 비교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캠페인을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해야 합니다.

문명호 사회분열, 당파 계파싸움, 이념과 지역 계층간 갈등현상을 어떻게 치유해야 하겠습니까.

이택휘 조선조 근세국가가 500년 이상 존속한 국가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시대의 적합한 정치전통과 법치전통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현대사회는 다원사회이고 다양한 요소의 공존사회로서

3면으로 이어집니다.

대통령 임기4년 중임제로 改憲을

光復 70주년 좌담 — 大韓言論 2015주제 ‘나라 바로 세우기’

2면에서 이어집니다.

공존원리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 제도적 장치는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를 전제로 하면 갈등과 분열요소보다는 사회 통합과 발전측면의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 원리는 첫째가 소수자 보호원리입니다. 그걸 관용(Tolerance)의 원리라 합니다. 둘째는 현대법치주의가 순기능 할 수 있는 Merit System, 공정한 경쟁원리입니다. 이걸 물론 기회의 공정한 경쟁이지 결과물을 노력도 없이 나눠 먹는 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을 전제로 하는 법치주의가 작동하면 공동체 구성원인 시민의 입장에서 정당하게 구성된 공적 권위에 대해 자발적 존중이 따라옵니다. 우리나라의 공권력은 있으나 마나고 취약합니다. 법치주의를 공동체 운영원리로 정착시키는데 중요하게 정치적 리더십입니다. 정치적 리더십은 공정성만 갖고는 안 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합니다.

송 북 조선조가 어떻게 500년이나 갔느냐. 오늘날 북한을 보면 망하지 않는게 이상한 것과 같습니다. 역설적으로 국민을 굶주리게 하고 국가발전을 정체시키면 오래갑니다. 빈곤하고 정제하면 아래서 일어날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갖는 건 군대 밖에 없어요. 군대를 갖고 있는 한 오래갑니다. 광복 70년에서 우리한테 가장 큰 것이 뭐냐하면 온 국민에게 에너지를 준겁니다. 광복 이후 분열 속에서도 우리는 체제를 잘 유지해 왔습니다. 그 힘이 두 가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는 단합입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둘째는 분열하면 또 힘이 나옵니다. 핵분열을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분열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기술이 바로 이 총장이 말씀하신 정치 리더십입니다. 제대로 된 리더십만 만나면 국민은 일어납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였고 그 전통에 의해 굴러 온 것입니다. 박정희의 성장모델이 우리를 만든 성공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공적인 모델이라해도 25년 이상 갈 수 없어요. 1990년대부터 민주화시대로 들어가서 정치리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박정희 모델을 답습했습니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치유해 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몇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5세 이상 중에서 26.5%, 4명 중 한 명이 벌금 징역 등에 준하는 범법자입니다. 7백개의 법률과 5천개의 형벌조항이 국민을 묶고 있습니다. 과잉입법, 과잉규제입니다. 국민을 범죄자로 만듭니다. 법치전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 국가로 올수록 민법이 발달하고 웬만한 건 민사소송으로 해결합니다. 법치전통이 없는 나라일수록 형법이 발달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면을 하지 않으면 온 국민이 범죄자가 될 판입니다. 법과 규칙과 규율이 내 몸속에 들어가 살이 되고 뼈가 돼야 합니다. 이걸 사회학에서 내재화(Internalization)라 합니다. 범조항을 몰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하려면 정치리더십이 중요하고 국민은 그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문명호 통일문제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최서영 분단 이후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전쟁만 하지 않으면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이들이 많아요. 북한에 연고는 없지만 광복 이전에 학교에 다니고 금강산을 자유로이 오간 세대로서 통일을 갈망하는데 반해 젊은 세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송 북 통일에 기능적 통일과 국제적 통일이 있고 관리에 분단관리와 통일관리가 있습니다. 국제적 통일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건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기능적 통일은 3T정책



최서영 의장



문명호 주필

‘박정희 모델’ 30년간 답습 이젠 새 모델 나와야 할 때

통일 5~10년내 실현 전망 분단관리 잘 해나가야

국회의원 후보 국민 경선제 도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폐지

을 실현하는 겁니다. 3T란 Trans-transportation(물자이동의 자유) Trans-tourism(사람이동의 자유) Trans-telegraph(정보이동의 자유)입니다. 3T가 실현되면 정부가 둘 아니라 셋이 있어도 사실상 통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붕괴를 두려워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2~3년 아니면 3~4년 갈까요. 통일, 통일 하지 말고 분단관리를 잘 하자는 겁니다.

이택휘 남북분단문제 해소는 남북한 합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6자회담도 있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동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남북분단 통일 담론은 지속돼야 하지만 통일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문명호 통일은 언제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최서영 길게 보아 10년 이내가 아닐지요.

송 북 여론조사를 해 보면 5~10년 이내 실현이 제일 많습니다. 국제정세나 지정학적으로 보아 러시아 중국 일본이 남북한 통일을 바라지 않고 남한의 북한 흡수 통일도 그렇고 해서 북한 내부 붕괴로 통일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1800년에서 2000년까지 200년 동안 세계 207개 나라 중 66개(32%)가 소멸됐습니다. 북한이 오래갈 수 없고 남한이 북한에 넘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9년에서 10년 이내 통일이 오지 않을까 봅니다.

이택휘 북한이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를 예외로 하면 그렇게 빨리 오리라고 보지 않고 한 세대, 30년 정도는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문명호 이세기 전 통일원장관이 최근 저서 ‘6·25전쟁과 중국’에서 제2의 6·25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휘 김정은의 취약한 권력기반과 불안한 정치체제에서 우발적 전쟁 발발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남한은 단기적으로 피해를 보지만 북한은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도전은 하지 않을 겁니다.

송 북 ‘안보논리의 역설(Logic of Paradox in Security)’이란 말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의 무기를 갖고 있으면 전쟁억지력이 생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갖고 있어도 쉽사리 공격할 수 없습니다. 제2의 6·25전쟁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문명호 우리 역사교육은 어떻습니까.

이택휘 역사교과서의 왜곡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국정에서 김인정 역사교과서가 되면서 건국 지도자 이승만대통령에 관한 서술은 아예 없고 김일성 김구 내용만 담았습니다. 요즘 들어 조금씩 언급하고 있지만 광복과 대한민국 건국과정을 서술하면서 이승만을 빼놓는 역사교과서가 교과서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념에 따라 취사선택이 달라지고 왜곡된 역사를 정사(正史)라고 우겨선 안되죠. 근현대사 외에 고대사 상고사 문제를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일본과 중국에 의한 역사왜곡 문제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최서영 역사교육을 이념적 감정적으로 해선 안 됩니다.

송 북 국제관계를 너무 도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 국가이익과 안보에 보탬을 주고 해를 끼치느냐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역사에서 사실(Fact)이 중요한데 사실보다 인식(Conception)을 중요시합니다.

문명호 정치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 말씀해주시죠.

최서영 내각책임제로 정치체제를 바꾸었으면 합니다. 단점도 많지요. 그렇지만 기형적으로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는 걸 타개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어 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 북 내각책임제는 고도의 선진화 정치사회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정치 후진국에 맞는 제도인지 의문입니다. 대통령 중임제를 하고 국회의원후보 국민 경선제를 실시하며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이택휘 내각책임제는 한 세대 뒤 장기적 안목에서 모색할 만합니다. 대신 대통령임기를 조금 줄여 중임제를 하고 국회의원 전국구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적정 인구를 대변할 수 있도록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식 지역구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문명호 광복70년을 잘 진단해 주시고 앞으로 지향해나갈 길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 세대가 지나 광복 1백주년이 되는 미래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송 북 10년 전 일은 아주 조심해서 말하고 10년 뒤는 마음대로 말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30년 후면 대한민국은 통일도 되고 굉장히 융성해 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한 융성하고 번창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최서영 한반도는 대한민국체제로 통일돼 내부적으로 복잡한 모순을 드러내지만 잘 극복해서 중국 일본과 더불어 3국 중심의 세계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이택휘 두 분 말씀처럼 한국은 상당히 발전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다만 한 세대 안에 통일이 된다면 내부적으로 정치 사회 경제 각 분야에서 문제를 수습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에 추가해 강국이 될 베트남을 합쳐 4대국이 아시아판도를 넓혀 줄 것이라 전망합니다. ☞

‘패거리’ 청산해야 ‘4류정치’ 바로 선다

1995년 4월13일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은 중국 방문 중 한국 특파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한국 정치를 ‘4류’라고 개탄했다. ‘한국의 경제는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했다. 그로부터 19년 뒤인 2004년 4월26일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우리의 정치를 ‘3류 수준’이라고 한 단계 올렸다. 하지만 3류는 너무 후한 점수다. 한국정치는 아직도 ‘4류’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치학 교과서에 따르면 정당(政黨)은 ‘공공이익 실현을 목표로 하고 권력 획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치 집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들은 ‘공공이익 실현’ 보다는 패거리의 사적 이익과 권력 장악만을 위해 똬다. 정당이 아니라 파당(派黨)이다.

패거리 정치는 우리나라 정치를 건국 이후 4류로 멈춰 세웠다. 국회 건물은 번듯해도 국민을 위한 입법은 초라하다. 파당은 많아도 정당다운 정당은 없다. 정당은 당원들의 정당이 아니라 보스(두목)의 사당(私黨)이다. 저질 욕설은 난무해도 고급 정책개발은 드물다. 선거에서는 정책대결 보다는 지역감정 선동으로 승부수를 건다. 정치적 신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파는 없고 공천권 획득과 당권 장악을 위한 패거리만 들끓는다. 작금의 친박(親朴)·비박(非朴), 친노(親盧)·비노(非盧) 등의 패거리가 그것들이다.

우리나라 정당의 부끄러운 패거리 4류 정치 사례는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지난 6·7월 메르스(중동 호흡기증후군) 감염 확산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온 국민이 메르스 죽음 공포속에 밤잠을 설치는 절박한 순간에도 여야 정당들은 아랑곳없이 패거리 싸움질만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행정부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유승민 때리기에 맞춰 친박계는 폐지여 사냥하는 무리처럼 달려들어 유승민을 물어뜯었다. 그에 맞서 비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선 안 된다며 결사항전 했다. 집권여당이란 게 친박·비박 패거리 싸움질로 서로 욕설을 퍼붓는 등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았다. 메르스와 경기침체 대처를 위해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인데 집권 여당이란 게 그 지경이었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도 마찬가지다. 새정치연은 최재성 사무총장 임명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서로 맞겨렸다. 문 대표가 친노계의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자 비노계인 이 원내대표가 최 사무총장을 ‘친노의 대리인’이라며 반발했다. 메르스 비상사태

특별기고



정용석

·단국대 명예교수
·전 남북적십자회담 대표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친박-비박, 친노-비노 私的이익-권력만 추구

‘호남정치 복원’ 70년대 선동정치 답습

국회의원 절반 감축 상향공천제 채택 유권자 소환제 도입을

속에서 야당도 친노·비노 패거리간 내전에 빠져 허우적댔다.

새정치연은 아직도 결핍하면 망국적 지역감정을 선동한다. 지난 2월 새정치연 광주 전당대회에서 박지원 의원은 자기가 대표가 되어야 ‘호남정치가 복원되는 것’이라며 지역감정을 선동하였다. 정동영과 천정배 전 의원도 새정치연에서 탈당하고는 지난 4·29 재·보선에 나서면서 ‘호남정치 복원’을 역설했다. 야당이 아직도 1970년대 김대중 지역감정 선동 정치에 갇혀있음을 확인케 한다.

패거리 정치는 국회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패거리를 위한 노리개로 이용한다. 2012년 5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몸싸움 방지법 또는 국회선진화법)이 대표적 사례들 중 하나다. 자기네들끼리 ‘국회선진화법’이라고 자화자찬한 이 개악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과반수의결 원칙을 5분의3(60%)으로 바꿔 입법기능을 마비시켰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국회후진화법’ ‘식물국회법’이다.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거느리고 있

오늘의 니대르

이흥우 (본보 편집위원·상명대석좌교수)



었으면서도 야당과 함께 ‘식물국회법’을 통과시킨 데는 이유가 있었다. 야당과 쟁점법안을 놓고 몸싸움하는 것이 두려워서였다. 내 한 몸 편하게 지내기 위해 국가의 입법기능을 불구로 비틀어 버렸다. 정치인들이 공공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패거리의 일만을 추구한 탓이다.

얼마 전 실시한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무려 88%나 되었다. 그렇다면 ‘국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전화는 심심치 않게 관계당국에 걸려오기도 한다. 패거리 정치를 그대로 두고서는 ‘4류 정치’를 벗어날 수 없고 국회 폭파 협박도 사라질 수 없다. 패거리 4류 정치는 한국인의 정치문화의식 속에 오랫동안 뿌리박고 있다는 데서 하루 아침에 청산될 수는 없고 긴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

고 해서 패거리 정치 탈피가 그렇게 어려운 것만도 아니다. 해결책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유권자들이 차기 선거에서 패거리 정치로 설치하는 입후보자들을 뽑지 말고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면 된다. 패거리 정치를 뿌리 뽑기 위해선 유권자들이 먼저 후보들 보다 똑똑해져야 한다. 국민들이 ‘4류 유권자’에서 1류로 깨어나야 한다. 지역감정, 인맥, 학맥, 돈, 감언이설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4류 유권자’들을 깨우치기 위해선 교육·언론·예술·종교·시민단체 등의 연중 캠페인(운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둘째, 국회의원 정족수를 지금의 300명에서 절반인 150명으로 줄여야 한다. 의원 숫자가 적을수록 개개인의 의정활동이 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의원들의 추태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그들은 패거리 정치에 대한 부담감을 더 느끼게 된다. 동시에 의원수가 적어지면 의원들의 책임 의식 또한 높아져 막가파식 행동이 어려워진다. 세비도 절감된다. 그런데도 7월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재확정 논의에서 지역구를 5~32석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익 보다는 패거리 이익만 쫓는 또 다른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셋째,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이 요구된다. 현행 제도는 일단 당선되면 임기 4년이 보장된다. 4년 보장 속에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고 제멋대로 날뛴다. 소환제는 4류 정치인들의 탈선을 견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넷째, 상향 공천제 채택이 필수적이다. 지금의 ‘낙하산 공천’에서 상향 공천제로 바뀐다면 정치인은 차기 공천을 위해 당(黨) 보스 대신 지역구 유권자를 쳐다보게 된다. 유권자를 두려워한다면 유권자들이 혐오하는 패거리 정치도 자제 할 수밖에 없다.

패거리 정치는 4류 정치가 기생하는 숙주(宿主)이다.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내각제나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 한다 해도 결코 4류 정치를 극복할 수 없다. ‘국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전화도 사라질 수 없다. 패거리 4류 정치를 하루 빨리 청산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

언론 '좌경적 선동 구조' 드러났다

지난 6월24일 KBS가 6·25 남침 65주년을 맞아 ‘특종’(단독보도)이라고 내어놓은 ‘李承晩 일본 망명 요청 확인’ 기사는 조갑제닷컴의 취재로 ‘조작’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KBS는 訂正(정정)-기사 삭제-이사회 소집-보도 관계자 문책 인사의 파동을 겪었다. 이 과정을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한국 언론의 좌경적 선동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1. 李承晩 죽이기 풍조

요사이 언론계에는 〈李承晩과 朴正熙는 동네북, 金大中과 盧武鉉은 聖域(성역)〉이란 분위기가 깔려 있다.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하여는 아무리 왜곡하고 날조하여도 반발이 없을 것이라는 안이한 태도에서 사실확인의 소홀과 기사 아닌 소설쓰기가 시작된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침 이틀 뒤에 일본으로 정부 망명을 요청하였다고 단정하려면 한국 외교부와 미국 및 일본 정부를 취재하고 이미 공개된 공문서를 뒤지는 게 순서이다. KBS 기자가 그렇게 하였더라면 취재를 포기하였을 것이다. 그날, 즉 1950년 6월27일, 이승만 정부는 일본에 망명 요청을 하기는커녕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에게 결사항전의 의지를 전하고 무기 원조를 간청하였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니까.

2. 날짜 조작

KBS 기자는 취재의 正道를 벗어나 일본 야마구치 縣史(현사)와 재일교포 3세 교수를 찾아나섰다. 핵심적 취재원을 버리고 말단의 지엽적 정보를 쫓다. 나온 것은 야마구치 縣 전 지사의 회고담 중 한 문장이었다. 북한군이 낙동강을 넘어 부산으로 육박할 무렵 일본 외무성에서 자신에게 “한국 정부가 야마구치 현에 망명 정부를 세우고 싶어 한다”는 전보를 보냈다는 것이었다. KBS 기자는 이 증언을 가져가서는 여기에 6월 27일이란 조작의 옷을 입혀버렸다(문제의 전보가 실재하는지도 의심스럽지만 있다고 해도 정황상 1950년 8~9월이다). 그리하여 국군이 북한 공산군과 死鬪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승만 정부는 일본에 망명을 요청하였다는 ‘특종’이 창작된 것이다.

3. 거짓의 확산

KBS가 ‘6월27일 망명 요청’을 說이 아닌 사실로 단정하려면 일본 외무성 전보의 實在를 확인하고, 한국 및 미국의 정부 문서를 찾아내 비교하여야 한다. 그런 노력을 일체 하지 않고 날짜를 극적으로 조작(그래야 이승만을 악당으로 만들 수 있다), 사실로 단정하게 된 데는 ‘이승만은 동네북이니까’ 하는 안도감이 있었지 않을까?

한국 현대사에 조금의 상식이라도 있는 기자라면 자주정신의 化身인 抗日 투사 이승만이 일본에 망명을 요청한다는 것은 공상의 범위조차 넘어서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어야 했다. 부장 국장의 기사 교정 기능이 얼마나 허술한 지도 단적으로 드러났다.

KBS가 특종이라고 미화한 이 기사는 순식간에 국내외로 퍼져나갔다(2년 전 거의 같은 내용의 기사가 오마이뉴스에 실렸으므로 특종도 아니다). 받아 쓴 매체는 반이승만 성향이 강한 좌파 매체뿐이 아니었다. YTN은 KBS의 조작 보도에다가 이렇게 살을 붙였다.

〈일본 교토 오타니 대학의 정우종 박사는 이승만 정권이 한국전쟁 당시 일본 정부에 망명정권 설치를 요청했던 문서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찾아내 공개했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전쟁 발발 이틀 뒤인 1950년 6월27일 이승만 정권이 미 대사관과 일본 정부에 야마구치 현에 6만 명 규모의 망명정권을 설치하는 방안을 타진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위의 보도문은 전체가 소설이다. 그런 내용의 그런 문서는 없었다. YTN이 화면에 보여준 문서는 일본 縣 수준의 ‘비상조치계획서’였고 여기엔 망명의 망 字도 나오지 않는다.

대구에서 발행되는 영남일보의 사설은 제목이 〈36계 줄행랑과 이승만 망명정부〉였다. 이 사설은 北進(북진)하는 왜군 앞에서 도성을 버린 선조와 이승만을 동급으로 비교하더니 이런 막말을 했다.

〈혼자 살겠다고 하는 리더의 도망은 ‘줄행랑’이란 속어조차 분에 넘치는, 딱히 표현할 길이 없는 망동이다. 도망도 도망 나름이다.〉

‘망명 정부 수립’은 물론 조작이지만 있었다고 해도 ‘혼자 살겠다’는 건

특별기고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승만 日망명 요청” KBS 誤報소동

취재正道 벗어난 보도 非좌파 매체도 가세

기사 ‘조작’ 명백한데 ‘논란’으로 얼버무리

아니다. 정부 망명은, 국가의 계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 지도자 개인의 안전을 위한 것은 아닌데 영남 일보는 다른 언론이 조작한 허위사실에다가 자신들의 악감정을 보탰다. 이승만에 대한 이런 惡意는 대한민국에 대한 악의로 전환되기 쉽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 KBS의 是正노력을 ‘굴욕’이라고 반발한 언론 단체

한국기자협회보 인터넷판은 지난 7월8일 〈‘기사 삭제하고 반론 리포트까지…황당한 KBS’〉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오보나 조작이 밝혀지면 신속하게 정정과 기사 취소 조치를 취하여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여야 언론이다. 특히 공중파를 이용하는 공영방송은 그 파급력 때문에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기자협회는 KBS의 誤報(오보) 바로잡기 노력까지 ‘황당한 짓’인 양 몰아붙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권오훈)는 지난 7월6일 성명을 내고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보수단체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내용의 반론보도를 들어줬다”며 “굴욕적 반론보도”라고 반발했다. 좌파성향 전국언론노조에 뿌리를 둔 미디어오늘은 언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反언론적 선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매체이다. 미디어오늘 인터넷 판은 지난 7월8일 〈이승만 보도 관련 KBS 이사회 소집 논란 “‘친일사관’ 이인호 이사장, 방송 독립성 침해… 사퇴해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언론은 오보를 할 수 있다. 오보로 밝혀졌을 때 즉각 바로잡으면 넘어간다. 언론인 단체가, 조작된 기사를 바로잡지 말라고 방송사를 압박한다면 이런 조작은 ‘펜을 든 조폭’이라는 비판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5. 선동의 구조

사태전개를 정리하면 이렇다.

1. KBS의 이승만 일본 망명 조작 보도를 시작으로
2. YTN이 받아서 상상력을 추가, 거의 소설 수준의 오보
3. 국내외의 좌파 매체 일제히 ‘이승만 매도 기사’로 각색, 전파
4. 영남일보 등 非좌파 매체도 망명 요청을 기정사실화하여 社說 등으로 비방
5. 일부 기자, 임진왜란 때의 선조에 이승만을 비교, 못매질
6. 조작 사실이 드러나자 KBS가 정정, 기사 삭제
7. 좌파 언론 단체들, KBS가 굴복하였다고 공격
8. 다른 언론들은 이 사건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KBS를 간접 엄호
9. 이인호 KBS 이사장이 이사회 소집하자 좌파 언론 단체들, 이사장 공격
10. 야당 측 인사들, 이사회에서 조작 보도 논의 방해
11. KBS, 조작 보도에 책임 있는 국장 부장 급 4명을 보직 해임, 평직원으로 발령

6. 언론의 위기

이번 사태를 보도한 대부분의 언론사는 ‘논란’이라는 표현을 썼다. ‘조작’이 명백하고 KBS가 이를 인정하였는데도 쟁점이 있다는 뜻의 ‘논란’이란 표현으로 ‘조작’ 책임자들을 감싸는 편파 보도를 한 것이다. ‘조작’이 아닌 ‘논란’으로 만들기 위하여 6월27일 조작 사실은 애써 묵살하였다(잘 모르는 독자들은 KBS가 사소한 사안으로 과잉 대응을 하였다고 판단할 것이다). 동아일보 사설만이 〈이승만 誤報 내보낸 KBS 편드는 사람들 누군가〉라는 제목으로 正論을 폈다.

‘이승만 일본 망명 요청 확인’이라는 조작 보도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그 뒤 바로잡는 과정에서 언론의 원칙은 무시되었다. BBC나 NHK 같았으면 社外인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작의 과정을 밝혀내고 국민들에게 보고한 뒤 문책을 하였을 것이다. 언론다운 이런 公的인 시정 절차가 불가능한 것이 한국의 언론구조이다.

좌편향 이념으로 오염된 한국의 언론은 선동기관화 되어버렸다는 것을 이번 사태가 입증하였다. 언론이 자율적으로 조작을 바로잡는 것이 이렇게 힘든 나라에선 언론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을 것이다. 권력에 의한 언론제약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선동에 의한 언론 규제이고, 특히 선동기관화한 언론에 의한 언론자유 말살이다. ㉞

그리스 국가부도 ‘남의 일’ 만 아니다

그리스가 유럽연합(EU)의 구제금융지원으로 또 다시 국가 부도를 모면했다. EU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이미 두 차례 구제금융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번이 3차에 해당한다. 첫번째는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1,100억 유로를 지원받았다. 그리고 2012년 1,300억 유로를 지원 받기로 한 구제금융이 올해 6월말 종료됐지만 다시 디폴트(Default·채무 불이행,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3차 구제금융을 받기에 이르렀다.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정상들은 마라톤 회의 끝에 7월13일 그리스에 대한 860억 유로(약 110조원) 상당의 3차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국유재산매각, 연금삭감, 저소득층 보조금폐지, 법인세 인상 등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조건이 붙어있다. 아무튼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에 처할 만큼 위태롭던 그리스 경제가 '생명 연장' 선고를 받았다는 표현의 해석이 뒤따랐다. 2010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무려 2,400억 유로(약 300조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지만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 금융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정부부채(약 400조원)는 더 늘어났다. 과연 그리스는 3차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선 그 누구도 낙관적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될 뿐이다.

그리스의 디폴트 위기는 외형상 재정위기에 기인한다. 세금이나 국채 등의 정상적인 재정수입으로 공무원 봉급 등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어 국가부도 상황에 이른 것이다. 정부의 재정적자와 누적 과다 부채가 핵심 원인이다. 정부부채의 증가 원인은 복합적이다. △산업구조 취약과 마이너스 경제성장 △경상수지 적자 누적 △방만한 복지지출 △부자들의 탈세 △정치권 등의 부정부패 △단일통화 유로 사용에 따른 독자적 통화정책 대응 곤란 △경기침체의 악순환 등이다. 2009~2013년 5년동안 내리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나타내 경제난이 더욱 가중됐다.

이러한 원인분석과 관련, 세계적으로 진보 또는 보수성향의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양론으로 갈려 논란이 분분하다. 포퓰리즘 과잉복지가 큰 요인이란 주장(보수)과 그것이 한 요인은 될 수 있어도 복지와잉 때문으로 몰아갈 수 없다는 반론(진보)이 맞섰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란 현상을 보였다. 보수 우파는 때로는 사실을 과장하고 진보 좌파는 사실을 굳이 외면하고 이념을 앞세운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그리스 정부의 복지포퓰리즘에 의한 과다한 사회복지지출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로 총인구 대비 공무원 인원이 25%에 이를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연금으로 현직 시절 최고소득의 95%(다른 유럽국가 평균은 50%수준)를 지급해 주어 '연금천국'이란 별명을 얻는가 하면 일일이 예거하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퍼주기 정책들을 남발해 왔다.

그리스의 국가부채 급증과 재정위기는 1981년 사회당 집권과 함께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우 총리 취임 이후부터라는 지적을 도외시 할 수 없다. 그리스의 포퓰리즘이 그 때부터 시작된 데서 찾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나온 그의 첫마디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주리”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고, 의료보험을 전 계층으로 확대했다. 주요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무상교육, 무상의료로 추진해 나갔다. 포퓰리스트 정치인과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유권자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퍼주기 공짜 경쟁'이 일어나고, 급기야 감당할 수도 없는 '묻지마 복지'로까지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다. 1980년 국내총소득(GDP)의 25% 수준이던 국가부채는 작년현재 188%를 넘어섰다. 거듭



최희조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포퓰리즘 정치로 과다한 재정지출

복지 급속확대 우리도 불안요인

外生변수 등 감안 경제주체 건전성 긴요

되는 구제금융 지원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기침체를 벗어날 돌파구나 마땅한 경제성장 동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된다. 그리스는 유럽에서 재정건전성이 가장 나쁜 나라, 정치권의 부패로 정부 역량점수가 매우 나쁜 나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최악인 나라로 평가받는다.

이제 남의 나라 얘기만 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급속한 복지 확대로 복지지출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복지 예산은 2006년 56조원에서 지난 해 1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15조 원을 넘기면서 9년 만에 두 배로 뛰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반값 등록금으로 인한 복지분야 고정지출이 올해만도 77조원을 넘는다. 반면 해마다 세수 부족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의 경제여건과 상황은 그리스와는 다르다고 하지만 다양한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5분기 연속 경제성장률이 내수경기침체 등으로 0%대에 머물러 일본의 장기불황구조를 답습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온다. 저성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두드러진다. 일본은 장기불황에도 불구하고, 대외부채에는 별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작년 말 현재 GDP대비 37.9%로 낮은 수준이라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공기업과 지방정부 등 공공부채를 다 합치면 지금도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란 지적이다. 특히 가계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 경우에 따라 경제위기를 조성할 뇌관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나온다. 문제가 없다고 되뇌이던 정부 당국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러 가계부채 급증의 심각성을 엿보이게 한다.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문제도 경제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는 외생변수가 한국경제에 언제 어떻게 타격을 가해 올지 모른다. 미국의 연내 금리인상과 중국 경제의 후퇴조짐이 그리스 사태와 함께 불안요인이다. 그리스와는 무역규모나 직접투자면에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칠 직접적 영향이 제한적이고 작을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그리스 경제가 만약 3차 구제금융에도 불구하고, 악순환을 거듭하거

나 아니면 언제라도 과탄에 직면할 경우 유럽 전체와 세계경제에 미칠 간접영향까지 감안하면 결코 작은 영향에 머물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비해야 한다. 그리스 사태보다도 중국경제의 이상 징후가 우리 경제에 더 큰 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지적을 주목한다. 한국은 금융과 실물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다. 그리고 정치권의 부조리, 무책임과 신뢰상실, 행정부의 무능, 나아가 부정부패와 부유층의 탈세도 그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 금융기관, 가계, 정부 등 경제주체가 건전해야 위기의 충격이 작고 극복도 쉽다. 각 경제주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위기 대비의 기본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진정성을 갖고 국민경제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묘책이 없다 해도 지난날의 남미 특정 국가 디폴트를 닮았다는 그리스 사태를 타산의 돌로 삼아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야 말로 최상의 대응책이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권이든지 다음 정권이나 먼 후대까지 내다보기 보다는 당장의 실적이나 인기에 연연해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 누증의 한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다. 자신들의 임기가 끝나면 정책의 성과를 떠나 모든 게 그만이고 책임질 일도 없다. 개혁과 혁신을 임버릇처럼 말하지만 진정성이 따라야 한다. 그것을 담보하는 건 국민신뢰이다. [E]

국회의원 수 늘리자?

정치에 식상한 국민들 사이에 한 때 유행하던 우스갯소리가 있다.

“국회의사당이 여의도에 있는 한 한강물은 맑아질 날이 없다”는 독설이 그것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보다 허구한 날 여·야가 대립해서 싸움질만 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눈에 곱게 보이겠는가.

상황이 그런데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현재 3백명인 국회의원수를 369명~390명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위 ‘혁신안(?)’이란 걸 내놓아서 새로운 불씨를 던졌다.

지금 국가가 식물국회, 국해(國害), 심지어 해산하라는 소리까지 나오는데…

최택만(논설위원)

'100자 발언제'

國父를 國父의 자리로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의 50주기 추도식(7월 17일)에 참석했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추도사에서 “이제 國父를 國父의 자리에 앉혀야한다”고 해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참석자들은 “김대표가 새누리당 대표라기보다 憂國 애국동포들의 대표”라며 그의 이 사자후(獅子吼)가 일과성 소리로 끝나지 않기를…

윤익한(상담역)

양반다리 시진핑 주석

시진핑(習近平) 중국국가주석이 지린성 옌볜 조선족 자치주의 옌지(延吉)시를 전격방문(7월 16일)

했다는 보도가 유난히 눈에 띈다. 한때 해체설까지 나돌만큼 여건이 나빠졌던 조선족 자치주를 찾은 시주석이 광동촌 조선족 가정을 찾아 양반다리를 하고 한복차림의 주민들과 환담하는 모습이 더욱 이채롭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신호인 것 같다는 설도 있는데 과연 큰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취한 行步의 진의가 무엇일까.

전용호(편집위원)

일본인의 ‘섬나라 근성’

흔히 일본인들을 비판할 때 ‘섬나라 근성’이라고 말한다. 속이 좁고 자기들끼리만 뭉치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뜻에서다.

光復 70주년



송정숙

- 본회 회우
-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 전 보사부장관

日帝에 끌려간 위안부 식민지 수난의 산물

오라비 · 오랍동생위해 희생한 산업역군

성숙한 딸들의 잠재력 발굴 활용해야

‘孝女’들이 일군 ‘산업 대한민국’

이 땅의 딸들은 심청 신드롬에 주박(呪縛)된 후예들이다.

봉사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백석에 팔려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인당수 물에 몸을 풍덩 던지기를 조금도 저어하지 않았던 효녀 증후군.

2차대전 중에 유럽에서 적군의 문서나 첩보문 해독에 종사한 사람들 중에는 유능한 젊은 여성들도 많이 있었다. 그들 중 한명이 남긴 글에 이런 것이 들어 있다.

전투중인 남양군도의 일본군 전투부대에 연합 지휘본부가 보낸 전문을 가로채기해 빼낸 것 중에는 하물(荷物)의 내용을 분석하다가 그 내용이 ‘젊은 여자’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도 젊은 여성이었으므로 문득 기이하게 생각한다.

“젊은 여자를 하물로? 이게 무엇일까. 게이사라도 보낸 것일까?”

이 대목을 읽으며 반사적으로 떠오른 것은

“아! 이는 아마도 반도 출신의 종군 위안부였을 것이 다!”라는 생각이었다.

악랄한 일본군에 의해 끌려간 식민지의 딸들을 그들은 이렇게 짐으로 만들어 군함들에 실어서 수만리 떨어진 지구의 오지 섬 전투최전선에 던져졌을 것이다. 나쁜 것들.

그들은 일본군에 의해 현지에 쓰다버린 소모품처럼 버려졌다. 그들은 패전후 철수하는 일본군에게 매달리며

“죽어도 고향산천을 한번 보고 부모님 소식이라도 알고 죽을 수 있게 함께 데려가 달라”고 피를 토하듯 호소했다. 그런 것을 냉혹하게 털어버리고 돌아왔다는 것을 고백한 패잔병의 수기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집안이 궁핍하여 힘들면 누구보다도 딸들이 더 깊은 수렁에서 질곡을 당한다. 특히 효성 DNA를 지니고 태어난 이 땅의 딸들은 더욱 그랬다. 유난히 무능해 나라를 빼앗기고 능력이라고는 하잘 것 없는 식민지의 아버지, 오라비들은 딸들을 바치라고 으박지르는 침략자 일제의 위협을 거역하지 못했다.

가족의 수난을 한몸으로 막기 위해 딸들은 말없이 보파리를 끼고 집을 나섰을 것이다. 설마 그 길의 끝에 그토록 참혹한 음모의 지경을 침략자 일제의 군부가 그렇게 숨겨두었을 줄은, 딸들을 보낸 가족도, 그들을 따라간 당사자 딸들도 차마 몰랐을 것이다.

해마다 아득하게 치솟은 보릿고개 앞에서 많은 농촌의 딸들은 ‘남의 집살이’로 고향을 떠났고, 그래서 80년대 우리 민족 최대의 드라마가 된 TV의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은 눈물을 펄펄 쏟으며 밤을 지새게 하는 딸들의 사연으로도 서서서리 얹혀졌었다.

윤락 여성 갱생 시설에서 감호 여인들을 선도한 경험에 있는 여자 경찰 출신의 인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 그 여인들이 가출하게 된 동기를 물으면 하나같이 ‘오라

버니, 오랍동생’을 공부시켜 집안을 일으켜 보려고 집을 나섰다는 것이 대부분의 가출 이유였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그것이 그냥 핑계일 뿐인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았다는 것이 그 인사의 심증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경제 개발기의 산업역군으로 딸들이 차지했던 노동 현장의 인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들은 장판지가 붓도록 미신을 돌리며 일했고, 버스 차장이 되어 목이 터지게 고단한 세월을 보낸 여성들.

그들 거의 모두가 오라버니를 공부시키고 오랍동생 대학 등록금을 대기 위해 혼기를 놓쳐가며 일한 이 땅의 딸들이다. 그렇게 그들은 지난 70년을 버텼었다. 그들이 낮은 곳에서 굵은 일을 마다않고 사회기반을 다져왔기 때문에 우리의 ‘잘살게 된 기적’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남자 동기간을 공부시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기꺼이 자기 인생을 희생하는 딸들의 속성이 이처럼 보편화한 나라는 우리 나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마도 그 말이 맞을 것이다.

이런 딸들의 노력이 마침내 가정을 넘어 나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안다.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이 어느 나라보다 앞선 것이 대한민국이다. 실력과 능력이 콕콕 채워져 휴면중인 잠재 인력이 우리에게 지금 넘치게 많다. 지난 광복 70년 세월 눈부시게 향상된 이 인력의 보고(寶庫)를 국가 경영측면에서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미 갖춰진 인력은, 화산의 용암 같아서 필연적으로 내재적 열기의 분출을 발휘하게 마련이다. 작고 큰 분화구의 실체는 오늘도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다.

드디어 여성 대통령의 거대한 분화구도 실현되었다. 부정과 부조리와 부도덕의 퇴적이 나라의 성장 발목을 휘어잡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우리의 예감을 딛고, 이 커다랗고 새로운 분화구는 분출의 시도를 성공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선진국의 길목에서 좌절되지 않으려면 투명성과 정의로움의 기반이 견고하게 형성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어진다. 우리는 그 좁은 병목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철들고 정의롭고 성숙한 능력을 갖춘 딸들의 인력이 요긴하게 요구되는 시대에 이르러 있다.

여성대통령의 출현은 우연이 아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이어온 우리의 고난극복의 역사에서 ‘효녀들의 잠재력’으로 형성시킨 인적 광맥을 우리는 지니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을지에 나라발전의 한가지 열쇠가 들어 있음을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

‘100자 발언대’

그런 성격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 섬나라는 사면이 바다여서 거기서 밀려나면 곧 죽음을 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일본인들의 국기인 스모(相撲)시합을 보면 그 까닭을 알 만하다. 둥근 테두리 안에서 한 발짝이라도 밀려나면 패배로 끝난다.

일본의 거대 그룹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2차대전 당시 강제 노역에 동원했던 미군포로 피해자들 그리고 중국의 강제징용자들에게는 공식 사과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일본군국주의 최대 피해자들인 한국인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아 버렸다. 이런 이중 잣대 한 가지만 보아도 일본인들

의 압압하고 편협한 ‘섬나라 근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 아닐까.

지용우(논설고문)

생활정치로 가야

우리 국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매년 국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미국 다음으로 사법부, 행정부의 주요인사에 대한 청문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국회 선진화법으로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인 다수결 원칙도 무시하고 국회의원은 죄를 범해도 최종판결 일정을 미뤄 임기를 다 채울 가능성도 보인다. 이런 막강한 국회의 국민 지지도는 5%.

그런데 최근 여야의원 38명이 세계 최하위권인 한

국인의 죽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웰다잉 캠페인을 벌인 것은 국회가 생활정치로 가는 계기가 될는지… 이재원(자문위원 간사)

국정원 해커엔 난리, 북한 해커엔 침묵

안철수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구매와 민간인 해킹의혹과 관련해서 진상규명에 필요하다면서 30건의 국정원 파일 원본을 요구했다고 한다. 안 의원이 요구한 파일에는 국정원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북의 대남 공작에 대응한 대북공작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행위가 중대한 이적·반국가적 행위가 될 수도 있음을 모르는 것일까. 그는 최근 북한 해커가 국내 인터넷망에 침입해 북한 문제를 다루는 인터넷사이트 5곳을 해킹한 사실도, 또 원전을 해킹한 것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었다.

이보길(회원사업위원장)

光 復
70주년

나라사랑교육-보훈외교에 力點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듣는다

인터뷰 : 박기병 6·25참전언론인회장

광복 70년, 6·25 65주년, 국가보훈 정책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당면문제는 무엇인가. 박기병 6·25참전 언론인회 회장이 지난 7월 24일 오전 서울지방 보훈청에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을 만났다.

- 국가보훈처장으로서 광복70주년에 느끼는 소회는?

국가보훈 정책의 목적은 우선 국민 정신력 함양에 있으며,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과거의 희생정신을 현재에 알려서 미래 통일로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사후 보훈정책’을 ‘선제 보훈정책’으로 전환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정신을 기리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4년 동안 국가유공자분들을 예우하고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보훈처 공무원들에게는 행정마인드가 아닌 보훈마인드로 사고를 전환하여 근무하도록 지도했다. 이에 보훈처 직원들이 공감대를 이루고 전국적으로 안보실상 교육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보훈처는 또한 국민들의 애국심, 안보의식,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2011년 6월 ‘나라사랑교육과’를 신설하였고 보훈외교를 전담할 ‘국제보훈과’를 신설한 바 있다. ‘나라사랑교육과’ 신설이 우리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통해 하나 된 마음을 만드는 것이라면, ‘국제보훈과’ 신설은 6·25전쟁 유엔참전 21개국과 보훈외교를 강화하면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일이며, 향후 통일정책을 추진할 때 국제적으로 우호적 네트워크를 조성하여 국가보훈이 국·내외적으로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전유공자 좀 더 예우 할 수 없나?

사실 이 문제는 독립유공자와의 형평성 등 고려할 점이 많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지금 참전유공자(6·25, 월남전)에게 1인당 월 1만원을 인상해도 3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인기준 최저 생계비 월 60여 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월 40만원씩만 지급해도 무려 1조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당장은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며 다방면의 복지혜택을 통해 예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당장 국민 호국정신 함양 등 정신력 강화를 위한 나라사랑교육에도 많은 돈이 필요하다.

금년도 정부예산 375조 원 중에는 복지예산 116조, 군사대비 예산 39조원에 비해, 국민 호국정신 함양 등 정신력 강화를 위한 나라사랑교육 예산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오른쪽)이 박기병 회장에게 보훈정책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명예의 전당’ 건립 보훈처 장관급부처 승격 바람직

단 26억 원에 불과하다. 지자체도 광역시도의 경우 복지예산은 평균 1조 8천여 억원, 담당공무원은 약 800여명이 되지만 지역주민 호국정신 함양예산은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국민 호국정신 함양 정책’에는 법적 예산으로 국방비의 1/10, 갈등 비용의 1/100 정도 규모의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2016년도에는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어야 하겠다.

- 보훈처에서 특별히 추진하고 있는 광복 70주년 사업은?

광복 70년을 맞이하여 광복 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와 함께 국민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대문 역사공원에 ‘독립 명예의 전당’을 건립해 국민들이 쉽게 찾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현재 서대문 공원에는 독립유공자 약 2,800분 정도의 위패를 모시는 독립관이 있으나 장소가 협소해 더 이상 모실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독립운동가 2만여 명의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할 것이다.

항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임시정부 청사의 재개관’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현재의 전시관이 낡고 전시물의 다양성도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1월까지 청사 리

모델링을 완료, 재개관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1만 6,000여명의 활동을 심층적으로 정리하는 ‘독립운동가 인명사전 편찬’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인명사전이 완성될 경우 광복 60년 기념사업으로 추진된 ‘독립운동사 대계’ 편찬에 이어 독립운동 관련 기록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리가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분단국가에서 군사대비도 중요하지만 이념대비를 위한 국민 정신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군사대비는 국방부가 군을 통해서 한미동맹으로 대비하지만 이념대비는 국민이 해야 하고 동맹국이 도와 줄 수 없다. 패망한 월남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민의 이념대비를 비롯한 이시대의 안보상황에 필요한 호국정신 함양을 위해서는 정부가 교육, 언론·방송, 예술, 문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보실상과 이에 대비한 호국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보훈처는 이를 위해 현재 100여 명이 넘는 안보전문가들을 선정해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보실상을 강의하는 나라사랑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보훈외교’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6·25전쟁에 참전한 우리 국군은 약 90만여 명인데 반해 유엔참전군은 195만여 명이었고 전사, 부상, 포로, 실종자가

133,996명이었다. 이러한 희생과 공헌으로 6·25전쟁 구국의 3대전투인 낙동강 방어선의 다부동전투, 인천상륙작전, 장진호전투 등에서 승리하여 대한민국을 지키고,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유족, 후손을 대한민국에 초청하고 있으며, 참전국을 방문하거나 현지대사관을 통해 위로 감사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 참전국가의 참전용사 후손에게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을 기해 7·27 정전협정일을 정부 기념일인 ‘유엔군 참전

의 날’로 제정하였다. 6·25전쟁이후 60년 만에 처음으로 유엔참전 21개국과 중립국 감독위원회, 유엔총회 대표를 초청하여 대한민국 수호에 대한 감사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보훈외교’를 보다 더 강화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은혜를 입은 나라에서 은혜를 갚는 나라”로 국제사회에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또한 참전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할 것이다.

-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장관급 부처로 승격 시켜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전적으로 동감이다. 적극적인 국가보훈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그리고 국가적인 정책으로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처 상호간에 협의체계가 공고화되어야 하는데 현재 각 부의 청과 같은 차관급에 준하는 보훈처로서는 보훈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시켜 처장의 직급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각 부처의 장관과 동등한 지위에서 국정을 논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P]

정리 : 정운중 상임이사
사진 : 이철영 편집위원

光復 70주년

巨富 최재형 든든한 독립운동후원자

해외항일독립운동에서 투쟁기지는 주로 내국 이주민들이 모여 사는 정착지가 선택된다. 당시 조선이주민의 정착지로서는 중국의 간도(間島)와 러시아의 연해주(沿海州·Primorskii), 미국의 하와이 등 세 곳이었다. 필자는 광복70주년을 앞둔 7월에 찾은 연해주 곳곳에서 그들 속에 묻혀있는 독립운동의 잔해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재형(崔才亨·1860~1920)은 연해주 한인사회의 지도자였고 이 지역 독립운동의 대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예신분의 아버지와 기생출신의 어머니 사이에서 두만강변의 함북 경원군(慶源郡) 비천한 가정의 아들로 태어났다. 1860년대의 잇단 기근기(饑饉期)를 견디지 못해, 부모를 따라 1869년 두만강을 건너, 중국땅을 지나 연해주로 이주했다. 일가가 정착한 곳은 1863년 조성된 한인마을 티신허(Tizinkhe·地新墟)였다.

그의 집은 끼니가 어려울 정도로 가난했다. 어느 날 배가 고파 최재형은 11세 때 가출하여 이국땅을 헤매다가, 러시아 상선의 선장 내외를 만났다. 선장의 권유로 최재형은 상선의 선원이 됐다. 6년 동안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국제정세를 익혀, 그는 스스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선장내외 덕분에 근대교육을 받으면서 최재형은 인텔리 청년이 되고, 러시아어에 능통하여 한인노동자들이 고용된 공사장의 통역관으로 일했다. 후엔 인원수가 많은 러시아 극동함대사령부 식료품 납품권을 얻어내, 당대 연해주 최고의 외국인 거부가 됐다. 민족의식이 투철했던 최재형은 1905년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 반식민지가 되자, 독립운동에 나섰다. 그는 연해주에서 번돈으로 한인들의 집결지 여러 곳에 초등학교 30개를 세우고, 장학회를 만들어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학교에 다니게 했다. 우수하지만 가난한 학생들을 뽑아서는 러시아 각 도시로 유학까지 보내 중등교육을 받게 했다.

최재형은 독립운동자들에게 든든한 후원자였다. 1907년 안중근(安重根)이 연해주에 왔을 때는 그를 가까이 맞아들여 함께 독립을 의논했다. 최재형은 안중근의 열렬한 애국외지에 크게 감명받아, 그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섰다.

최재형은 1908년엔 고종의 헤이그밀사였던 이위종(李瑋鍾) 등과 동의회(同義會)라는 독립운동단체를 만들었다. 동의회는 독립군의 국내진격을 목적으로 하는 무장투쟁조직이었다. 600여명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책임자인 총장엔 최재형, 부총장엔 간도(間島)관리사를 지내 명성이 높았던 이범윤(李範允), 회장은 이위종, 부회장은 엄인섭(嚴仁燮)이 선출됐다. 안중근 등 발기인들은 모두 평의원이 됐다. 동의회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은 재력이 최재형과 명문가 이위종이 부담했다.

그들속의 연해주 독립운동史

구중서 · 본회 논설위원 · 전 중앙일보논설위원 · 한국문명사연구소대표



블라디보스토크 금각교를 배경으로 선 필자.

安重根 후원 崔才亨 뒤늦게 조명 김정일 태어난 소련군숙소 확인

최재형은 독립군 부대에 자금을 대고 무기를 구입하고 군량미와 장비까지 마련해 주었다. 1908년 독립군 최초의 국내진입작전엔 동의회 소속 의병 600명이 동원됐다. 이때 안중근은 50명씩으로 구성된 4개 소대를 지휘했다. 공격노선은 가까운 함경북도 방면이었다. 그 후에도 독립군부대들이 여러 차례 국내진격을 벌였으나, 정보를 미리 입수했던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모두 실패로 끝났다.

적을 눈앞에 두고도 노선분열

대일무력투쟁을 주장하는 급진파격파들이 만주의 간도와 연해주에 머물러 있었지만, 독립군의 국내진격이 실패하자, 노선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일어났다.

온건파는 무력투쟁을 중지하고, 인재육성 국민교육 문화활동과 독립 후를 대비한 준비에 충실해야 된다는 계몽론(啓蒙論)을 폈다. 그러나 강경파는 전쟁의 승패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면서, 광복이 이뤄질 때까지 일본군에 대한 군사공격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한다는 무투론(武鬪論)을 주장했다.

계몽론과 무투론의 논의 결과, 무력투쟁을 고집해온 연해주의 독립운동가들도 두 파로 갈렸다. 최재형은 계몽파, 안중근은 무투파였다.

계몽파가 된 최재형은 1909년에는 신문사 대동공보(大東公報)를 세워, 조선어 신문을 만들어 동포들에게 돌렸다. 기사 내용은 주로 조국에서 벌어지는 소식들이었지만, 사실과 칼럼에서는 일본의 잔학성과 조선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내용들이었다.

연해주 독립운동을 지휘해오면서 무력투쟁을 강조해온 좌파독립운동가 이동휘(李東輝·1872~1935)도 계몽파로 돌아, 김구(金九) 안창호(安昌浩) 양기탁(梁基鐸) 등과 함께新民회(新民會)를 만들어, 학교교육 등 점진적인 문화계몽운동에 노력했다. 이동휘는 고려공산당을 만들어 강경파인 당내 이르쿠츠크파에 대립하면서, 임시정부와 합류하여 임



김정일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진 우스리스크 남쪽에 있는 당시의 소련군 장교숙소.

정의 군무총장과 국무총리도 역임했다.

고종퇴위 이후 일본의 강압행위가 강화되자, 안중근을 중심으로 한 무투파 동의회원 12명은 투쟁을 더욱 적극화했다. 그들은 1909년 유혈투쟁을 계속하기로 선서식을 갖고, 왼손의 약손가락(無名指·엄지에서 4번째)을 잘라 한자로 ‘大韓獨立’ 네 글자를 혈서로 썼다. 이 유혈결사가 안중근의 단지동의회(斷指同義會)다.

‘김정일 백두산 출생’은 거짓

3·1운동 직후인 1920년 독립군부대장 홍범도(洪範圖·1868~1943)의 만주 봉오동(鳳梧洞)전투에서 일본군을 공격하여 120명을 살해했고, 김좌진(金佐鎭·1889~1930)의 2개 대대는 만주 청산리(靑山里)에서 일본군 3,300명을 사살케 했다.

패전을 거듭한 일본은 5만명을 만주와 연해주에 투입하여 독립군 소탕전에 나섰다. 그때 우리 독립군들은 만주 북쪽과 연해주로 물러섰다. 김일성(金日

成·金成柱)은 그때 만주에서 러시아로 피신하여, 소련군 장교로 편입돼 소련군 88여단에 편입됐다. 부대 공식명칭은 ‘소련원동방면군 제88보병여단’이지만, 보통은 ‘8641보병특별여단’이라는 특수부대다. 88여단은 블라디보스토크의 북쪽, 우스리스크 남쪽의 야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장교숙소는 부대 앞 도로가에 붉은 벽돌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다. 김일성의 숙소는 동쪽 끝의 2층 방이었다.

지금 그 집은 비어있고, 빈 방에선 검정색 고양이 한 마리가 내다보고 있었다. 김정일이 태어난 곳은 바로 소련군 장교숙소의 김일성 방이었다. 이는 이곳에서 일하던 여성들이 증언하여 명백한 사실로 기록돼 있다.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곳에 기념물을 지어놓고, ‘백두혈통’ 운운하는 것과는 다르다.

내분으로 빚어진 ‘자유시참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海參威)와 시베리아의 치타(Chita) 사이에 있는 알렉세이요스크를 한국인들은 ‘자유시’(自由市)라고 불렀다. 그 지역이름 시오보드니(Syobodnyy)가 자유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흑하(黑河)라고 불렀다.

이 자유시에서 독립군의 친소좌파와 중립우파들은 군사지휘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다. 이 권력싸움에 소련군이 개입하여, 다수의 우리 독립군이 사망하거나 생포되는 참극이 벌어졌다. 이것이 이른바 ‘자유시참변’이다.

친소좌파의 지도자는 오하묵(吳夏默)이었다. 그는 러시아로 귀화하여 볼셰비키당(Bolshevik P.)에 가입한 조선계로 ‘자유대대’ 부대장이었다. 자유대대는 과격 고려공산당인 이르쿠츠크파에 속한 독립군이다.

중립우파의 지도자는 역시 러시아에 귀화한 조선인 박일리아다. 그는 독립군인 사할린의용대 대장으로 있으면서 일본군을 공격했다가 반격에 밀려 연해주로 온 ‘니항부대’(尼港部隊·Nihong부대) 부대장이었다. 니항부대는 이동휘의 고려공산당 온건파인 상해파에 속했다.

오하묵은 일본군에 쫓기는 만주와 연해주의 조선독립군 지휘권을 잡기위해, 소련군과 싸고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군을 자유시에 모이도록 지시했다. 대부분의 독립군 부대들이 자유시에 모였다. 만주에 있던 김좌진 이청천 홍범도도 부대를 이끌고 자유시로 갔다.

오하묵의 야심을 전해들은 박일리아는 이를 저지하려 했다. 오하묵이 소련군에 요청하여 박일리아에게 니항부대의 무장해제를 명령케 했다. 박일리아가 거부하자 소련군이 니항부대를 포위하여 집중사격을 벌여, 사망자와 부상자가 1,000여명에 달했다.

이 참변은 친러 고려공산당 이르쿠츠크파의 승리, 이동휘의 온건파와 고려공산당 상해파의 패배로 끝나고, 군권은 친소파 오하묵에게 넘어갔다. 그 후 독립군의 활동은 약화되기 시작했다.

자유시참변은 독립운동사상 가장 부끄러운 수치다.

언론을 말한다

Inside Journalism

인사이드

‘먹방’ ‘쿡방’ 전성시대 점입가경

모든 생명체는 먹어야 살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이 만드는 요리에 이르면 예술이 된다.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 ‘카페 앙글레’의 수석 요리사였던 바베트 에르상은 파리로온 때 남편과 아들을 잃고 노르웨이의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독신녀 자매와 함께 살아간다. 12년 뒤 바베트는 만 프랑 짜리 복권에 당첨되고 그 돈으로 노 자매의 부친인 죽은 목사의 100번째 생일 잔치상을 차린다. 동네 주민들을 초청해 차려낸 만찬은 프랑스 최고의 정찬 코스 요리였다. 모든 재료를 프랑스에서 직접 가져오고 최고의 와인들을 서브한 만찬을 맛보며 시골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연다.

한 끼 식사에 만 프랑을 다 써버린 바베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매에게 그녀는 말한다. “마님들을 위해서라고요?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였어요. 저는 위대한 예술가니까요. 위대한 예술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아웃 오브 아프리카’를 쓴 덴마크 작가 이자크 디네센(1885~1962)의 원작을 영화화한 이 작품은 요리는 예술이며 요리사는 예술가임을 선언한 것이다.

2015년 한국 방송가를 주름잡는 대세는 요리사들이다. 이들은 요리 프로그램의 시작으로 예능과 토크쇼, 다큐멘터리에 이르기까지 방송가를 종횡무진 섭렵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김현록 기자는 ‘시청자를 배고프게 하고… 시청률을 배불린 네 남자’로 슈가보이 백종원과 허세셰프 최현석 그리고 중식대가 이연복과 허당매력 샘킴을 꼽았다. 가정의 주방은 여성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 최고의 방송 셰프 네 명은 모두 남성들인 게 좀 특이하게 보인다.

외식업체 더본코리아의 대표이사 백종원 씨는 17세 연하의 소유진과 결혼해 화제를 모았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도 없는 그는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백주부의 고급진 레시피’를 제목으로 곁고 쿡방과 먹방을 동시에 선보여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뒤이어 ‘집밥 백선생’은 백종원 표 가정식 레시피를 전수받는 본격 요리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회 시청률을 갱신하고 있다.

그의 요리에는 설탕이 핵심이다. 맛있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친근하고 대중적인 레시피는 그동안 다이어트를 위해 금기시해오던 조미료들을 해방시켰다. 그러나 칼로리의 과다 섭취에 대한 전문가의 경고는 따라 다닌다.

레스토랑 ‘엘본 더 테이블’의 총괄 셰프인 최현석 씨는 소금 뿌리기가 전



유자호

·본보 편집위원
·전 KBS 파리특파원
·전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남성방송셰프 4명 예능프로 장악 비만문제 해소 등 사회공헌 기여를

매특허이다. 190cm의 당당한 체구와 자신감 넘치는 입심, 예능인 뽀치는 순발력은 TV 쿡방 프로그램에 예능의 재미를 더했다.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식자재들로 똑딱 한 그릇을 차려 내놓는 ‘냉장고를 부탁해’에서 평범한 조리법과 재료 사용을 거부하는 독특한 그의 요리를 만날 수 있다.

중식당 ‘뚝탄’의 오너 셰프인 이연복 씨는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중국집 배달을 시작으로 해서 중식의 대가에 오른 스타 요리사이다. 목직한 식도를 이용한 화려한 칼질과 요리 기술로 근사한 정통 중화요리를 선보이면서도 미소를 머금은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는 모습이 트레이드마크다.

이탈리안 레스토랑 ‘보나세라’의 총괄 셰프인 샘킴은 이선균이 출연해 히트한 드라마 ‘파스타’의 실제 모델이다. ‘진짜 사나이’ 등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까 하는 진심을 보였다.

이밖에도 강레오, 토니오 등 많은 요리사들이 TV 화면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성가를 높이고 있다. 어느 날 전철에서 노부인이 집으로 전화를 걸어 ‘백종원 식으로 만들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요리사의 이름이 보통명사가 된 것이다. 이 정도면 셰프들의 명성이 세상을 움직일만 하게 되었다.

‘삼시세끼’는 셰프들이 등장하지 않는 특이한 요리 프로그램이다. 자기 손으로 라면이나 끓여 먹어보았을까 싶

은, 스케줄에 쫓길 인기 남녀 연예인들이 의논해서 식자재를 구하고 요리하는 것을 보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차승원은 이 프로그램에서 탁월한 셰프의 가능성을 선보여 만일 배우를 접는다면 식당을 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 유해진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널리 알렸다.

드라마에서 셰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다반사가 되었다. 최근 방송을 시작한 ‘오 나의 귀신님’도 식당이 무대이고 셰프가 주인공이다.

이밖에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뉴스전문채널들이 모두 요리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있다. MBC의 ‘맛있는 TV’, EBS의 ‘최고의 요리 비결’, tvN의 ‘식샤를 합시다’ 등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다. 또

한 프로그램의 코너들로도 요리가 등장한다. 현재 한국의 TV는 요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을 점령한 ‘먹방’과 스타 셰프 열풍은 외국에서 온 것이다. 제이미 올리버, 고

든 램지 같은 유명 셰프와 그들이 출연한 방송이 한국 음식 프로그램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처럼 이렇게 집중되어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TV 스타 셰프의 원조격인 영국인 제이미 올리버는 학교 급식 개선 운동으로 기사 작위를 받았다. 백종원 씨는 광고료를 기부하기도 했지만, 우리의 스타 셰프들도 비만 문제 해소 등 요리를 통한 사회 공헌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TV는 시대의 창이다. TV의 편성표를 보면 이 시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 시대 한국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이다. 그리고 여유있게 된 경제력으로 삶을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거기에 대한 방송의 답이 먹방이요, 쿡방인 것이다.

이제 PD들은 먹방 쿡방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청자의 관심만 추종하다보면 프로그램의 질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바베트의 말처럼 ‘요리사는 예술가’이며 방송은 문화 현상이다. 고급 요리사, 고급 방송이 우대되어야 한다.

시청자들의 관심은 또 변한다. 방송 편성은 촉각을 곤두세워 이 흐름을 재빨리 잡아채야 할 것이다. 먹방을 선도한 방송사들이 성공했듯이 또다른 시대의 흐름을 프로그램으로 선도하는 방송사가 미래의 승리자가 될 것이다. 방송의 무한 경쟁은 점입가경이다. [본문]

‘사이버미디어’

포털 ‘공개형 뉴스자
6개언론단체 참여

포털 양대축인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는 지난 5월 ‘공개형 뉴스자(이하 평가위)’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학회, 언론진흥재단 등에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10월 제1차 준비위 예비모임이 신문협회, 온라인협회, 한국케이블TV협회 등 6개 언론단체가 참여

네이버, 다음 카카오는 사무 및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준비위는 이후 7월 16일 2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 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했다. △과도한 어뷰징(동일기사 반복 전송) 및 사이버 심사 △기존 제휴사 계약해지 판단 여부 등이다.

평가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사이버 미디어 공’ 때문이다. 그간 미확인 기사의 무차별적 양산, 가 광고, 기사 어뷰징 등은 사이버 미디어 공간을 오

광고주협회 ‘유사언론행위’

광고주협회가 지난 7월 1일 발표한 ‘2015 유사사’ 참여한 기업 홍보담당자 중 90%가 유사언론행위 인해 직접 피해를 봤다고 답했다.

유형별(복수 응답 가능)로는 ▲기업 관련 부정 는 사진 노출(79.3%) ▲사실과 다른 부정 이슈와 매체로 메트로신문(33% 응답)이 지목됐다.

광고주협회 보도자료가 발표되자 메트로는 “준 적으로 짚는 것은 현시대 언론의 당연한 임무라기 이냐”며 “광고주협회가 광고라는 무기를 앞세워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광고주협회는 2011년에도 ‘광고주가 뽑는 나쁜 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매체가 지목된 반 공개 지명돼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이순동), 한국광고주협회 한국광고학회(회장 박현수) 등 광고 3단체와 학회 함께 ‘광고시장 선순환 성장을 위한 광고계 성명서’

광고계는 성명서를 통해 ▲유사언론사의 저널리즘 촉구하고 ▲뉴스 어뷰징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털이 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했다. 한편 다음 카카오는 자사에서 서비스되는 ‘오피셜 댓글’ 서비스를 도입했다. 네이버 역시 유 을 검토 중이다.

이들 서비스의 특징은 취재대상인 정부와 기업 있도록 공식 댓글글을 신설, 눈에 잘 띄도록 댓글

언론진흥재단 ‘디지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병호)은 지난 6월 25~27일 제주 서귀포 KAL호텔에서 각 언론사들의 디지털 저널리즘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왜 디지털 포스트인가’를 주제로 워크숍을 열었다.(사진)

종합일간지와 경제지, 지상파, 종편 등에서 근무하는 부국장 및 부장급 언론인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미디어기업의 디지털 퍼스트 대응 전략, 디지털 시대의 뉴스 이용자 분석, 디지털 혁신과 소통을 위한 기법, 미디어 최신 트렌드, 모바일 이용자 확대와 기회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해 전국 성인 남녀

공간' 맑아질까

제휴 평가위' 설립제안

유사언론 규제 논의

월 28일 언론계가 주도하는 ‘공개형 뉴스제휴 평
하고 신문협회, 온라인 신문협회, 인터넷 신문협
하 준비위)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신문협회, 인터넷 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언론
한 가운데 열렸다.

광고 방송협회는 다음 모임부터 참여기로 했다. 광고를 선출하고 위원회의 역할 범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평가위’가 맡게 될 구체적인 권한은 언론행위에 대한 기준 마련 △신규언론사 제휴 △광고주와의 ‘공간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사를 빌미로 한 광고협찬 강매, 선정적 기사 및 허위·왜곡 보도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을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협회 차원에서 논의할 만한 쟁점을 먼저 정리해 본다.

피해실태조사' 발표 파문

언론 행위 피해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87%는 유사언론행위로

정적 기사 게재(87.4%) ▲기업 경영진의 이름 또
다 엮기(73.6%) 순이었다. 가장 심한 사이버 행위

법·의식의 결여 등 재벌 3세 체제의 문제를 비판하고 생각한다. 이를 지적하는 것이 왜 사이비 언론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제거하거나 길들이려는

은 언론' 다섯 곳을 공개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면 이번에는 이름이 꽤 알려진 언론사 메트로가

회(회장 이정치), 한국광고산업협회(회장 정만석),
회는 7월 20일, 유사언론행위에 대한 우려 표명과
을 발표했다.

저널리즘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저널리즘의 전문성 제고, 저널리즘의 사회적 책임 강화, 저널리즘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당부하며 ▲포용적이고 합리적인 뉴스 환경 조성에 앞장서줄 것을 촉구했다. ▲뉴스에 대해 정부, 기업이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등 편파적인 성격의 서비스인 ‘공식 의견 서비스’ 도입

에 공식ID를 부여해 직접 반론·해명 등을 할 수
 단 최상단에 고정키로 한 것이다.

이탈 퍼스트' 워크숍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선호하는 뉴스 기기는 스마트폰(41.3%)인 것으로 나타났다. TV(29.5%), PC(21.0%)가 그 뒤를 이었고 종이신문은 5.3%에 불과했다. 

정파주의-선동 보도 고개 숙여



박석흥

·본보 편집위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대우
·전 언론법학회 감사

당·정·청 체제정비와 권력형부패 척결 등 박근혜정부의 집권 후반부 패러다임 시프트에 발맞춰 신문도 정파주의와 포퓰리즘의 혼미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의 정기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종편방송의 소음에 휩쓸려
표류하던 신문이 사회적 공기로서의
기능을 성찰하며, 신뢰를 회복하고 있
다. 유승민 사태 후 황색 저널리즘의
악습과 정파주의·선전선동 보도가 고
개를 숙였다. 김영삼(YS)~이명박
(MB)정부 20년 배신·분열·반동의 정
치에 익숙했던 신문이 국가발전, 좋은
정치, 시민성·공공성·국민의 올바른
역사인식 함양을 어젠다로 설정했다.
광복 70년에 걸맞는 신문의 대전환이
다. 한국은 제2차 대전 후 독립한 국
가 중 제일 먼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국에
진입했다.

그러나 뉴스위크가 ‘세계 최고의 나라’ 15위로 선택한 대한민국의 신문은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후진 정치의 과잉 민주주의 열기와 환상적 민주주의 정치의 포로가 되어 공론 형성 기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날 적폐 개혁 과제를 떠안고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임기 전반기를 땀글·세월호·메르스 파동에 휩쓸려 보내고 집권2년차에 부패 척결과 개혁 작업을 본격 가동했으나 영향력 있는 보수지까지 이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혹평하며 발목을 잡았다. 한 신문은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 커져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박근혜정부의 부정부패와의 전면전 선언을 ‘MB정부에 대한 표적 시비’라고 해석하는 기사를 1면에 대서특필하고 당일 사설도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교황 비오12세(재위 1939~1958)는 “언론이 진실이 아닌 것, 분명히 틀린 것, 윤리 평화 화목을 해치는데 한 몫을 하는 내용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며 공동선을 역설 했다. 비오12세는 “정보는 올바른 상관관계에서 분석돼야 한다”며 객관성·정확성·진실 탐구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권력형부패 척결에 대한 반론으로 일부 신문이 정치 부패와 관련 있는 사람들의 주장을 검증 없이 인용한 것은 정확성·공공성·독립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언론학자들은 지적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12건의 방산(防産) 비리 사건을 수사해 9809억 원의 사업 비리를 적발하고, 전·현직 군 장성 10명 등 63명을 재판에 회부했다. 감사원도 한국공사, 가스

트레이트와 해설로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사회적 공기로써 가치 있는 정보를 알린 것이다.

7월 19일은 이승만(李承晩) 건국 대통령 서거한 지 꼭 50년 되는 날이었다. 여러 신문이 사설 칼럼 및 기획 기사로 이승만대통령을 추모하는 특집을 마련했다. 조선일보가 16일 양상훈 논설주간의 ‘한 위대한 한국인을 무릎 꿇고 추모하며’ 칼럼과 20일 ‘건국대통령 제대로 평가해야 우리 현대사가 바로 선다’는 사설, 이승만 서거 50주기 특집으로 ‘하와이의 마지막 5년’ ‘마지막 나날들’ ‘건국의 산실’을 3회에 걸쳐 연재했다.

국민일보는 15일 성기철 논설위원의 ‘이승만 대통령 50주기라는데’라는 칼럼으로 건국대통령 재평가를 역설했으며 동아일보는 17일 ‘이승만 오보 내보낸 KBS 편드는 사람들 누군가’라는 사설을 통해 “인물 평가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

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17일 김종필의 이승만 대통령 서거50주년 특별회고 증언록과 19일 하와이 그리스도교 연합감리교회에서 베풀어진 이승만 건국대통령 서거50주기 기념식을 20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17일 박정희정부가 이승만 귀국을 반대하지 않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으나 반론이 강해 검증이 필요할 것 같다. DJP정권기에 땅에 묻었다는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내외분의 묘'라는 묘비가 빛을 봐야 할 것이라는 조선일보 해설기사는 설득력이 있었다.

7월 주요 신문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정부의 교육 행정을 비판했다. 한겨레신문이 ‘수학 포기자 절반인 교실, 획기적 방안 필요하다’, 한국일보가 ‘학생 절반이 수학 포기자 현실 이대로 둘 것인가’, 경향신문이 ‘수학 포기자 막으려면 대입정책과 교과서 바꿔라’라는 사설을 24일 일제히 실었고 다음날 중앙일보도 ‘수포자 60%인 교육으로 과학 강국 어렵겠다’는 사설로 공교육 파행을 성토했다.

공교육 파행도 행정 부패다. 교육관련 사설은 교육 부패 고발과 함께 편수업무와 장학지도 강화 등 교육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제기해 교육 정상화를 촉구 했어야 할 것이다. 18일 국민일보 오피니언란의 ‘내교회주의라는 우상숭배’는 한국 개신교회의 타락을 우려한 경고였다. 7월 신문이 정치권의 권력 싸움과 저질 선전선동에서 벗어나 사회 쟁점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낸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박정부 4대개혁 - 창조경제 상세보도
이승만 건국대통령 재평가 눈길끌어

공사, 광물자원공사의 실패한 투자금 35조 8000억원 중 석유 15조 7894억원, 가스 9조 8980억원, 광물 2조 1531억원이 MB정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밝히고 검찰은 비리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과거사 수임비리 의혹에 연루된 변호사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고, 권력 핵심부의 묵인으로 저질러진 누적된 재벌의 세금 탈세와 비자금 조성도 기소해 재벌 총수 여러 명이 수형 중이다. 뇌물 수수혐의로 여야 국회의원도 검찰이 입건했다. 정치권과 관료 사회의 패거리 문화와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벌어진 파워엘리트의 부패 무능은 불신을 넘어서 혁명까지 우려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다.

이런 망국적인 권력형 부패를 감시
고발해야 할 신문의 부패세력 두둔 인
상은 지식사회의 지탄대상이 되었다.
일부 신문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과 박근혜 정부의 당·정·청 관계
재정립 후 권력형 부패세력과 미래권
력을 선호하는 신문의 편파적인 보도
가 7월에 적어진 것은 다행이다. 7월
신문은 박정부의 4대개혁과 창조경제
활성화 호소를 소상하게 보도했다.

박대통령이 17일 제헌절에 헌정회 임원들에게 “국회도 민생을 돌보고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치 싸움에 매달리는 것은 헌정사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정치 비판을 비롯해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다짐, 청년일자리 창출을 호소한 24일 창조경제 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대표단 간담회 등을 신문이 스

‘미국의 소리’ 전파하다 옥살이

조성국 원로회우
日帝治下 회고

71년 전, 일제의 식민폭정과 탄압이 극도에 달했던 시기 “일본은 망하고 한국은 해방 독립된다!”고 학우들과 주민들을 선도 계몽하다가 왜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애국지사 趙誠國(91) 원로회우를 만나 당시의 감회를 들어봤다.

- 趙 원로회우께서는 함남 함흥시 함남중학 재학시절 독립운동을 한 혐의로 옥고를 치르셨고 그 공훈으로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셨습니다. 광복 70주년 감회가 남다르실 텐데요?

“나는 훈장을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자료를 발굴하고 친구들의 증언을 받아 1982년 대통령 표창장을 주고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줬어요. 1944년 5월 함흥고보(뒤에 함남중) 다닐 때 학생서클을 조직하고 단파 三球 수신기를 만들어 <미국의 소리·VOA> 방송을 몰래 청취했지. 그때 조국이 광복된다는 확신을 가졌어. 방송내용을 비밀스럽게 계속 전해주다가 그해 6월 12일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가 모진 고문과 구타를 당했어. 배후를 대라는 게야. 단독 행위임을 강변했지. 육해군형법, 보안법, 무선전신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10월 12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단기 1년6월 장기 3년형을 선고했어.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그해 12월 인천형무소로 이감된 뒤 1945년 8월 광복 이틀 뒤에 석방되었지요.”

- 왜경에게 엄청난 고문을 당하셨다면 그 후유증은?

“그걸 어찌 말로 다 하나. 살아서는 나가지 못할 거라고 단념했지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고문과 매질이 날마다 이어지고... 그 때는 죽은 목숨과 같아 하루라도 빨리 죽었으면 했어. 사형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렸으니까. 그나마 다행한 일은 상급학교 진학을 하고 싶으니 죄명을 좀 낮춰 달라고 애원했는데, 일부를 들어준 일이야.”

- 단파 三球 수신기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日帝치하 중학 재학때를 회고하는 조성국 회우.

‘독립운동’ 감추다 뒤늦게 훈장받아

“특별한 기술은 없었지. 뭔가 새 소식을 듣고 싶다는 욕망에서 <학생과학> 잡지와 <무선과 실험>이라는 책에서 무선전파 관련 기사를 탐독하고 메가헤르츠를 맞추어 가면서 VOA 방송을 열심히 듣고 그 내용을 전해주었지요.”

- 독립운동 사실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사연이라도?

“감옥살이를 했으면 잡범 전과자라는 인식을 갖는 게 일반적인 관념이지. 그 때는 독립운동이 별로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 것 같았고... 아이들이 아버지가 감옥살이를 한 전과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앞섰던 겁니다.”

- 건국훈장을 수상한 것은 개인의 영광이자 가문의 명예 아닙니까?

“수상자 22명이 결정된 뒤 KBS에서 윤치영, 송지영과 내 사진을 띄우면서 방송하고 신문에서 보도했어요. 그때까지 아내는 물론 고3인 큰애도 몰랐지. 가족과 친인척들이 모두 놀랐어요. 그런 큰일을 하고도 숨겼다고 야단법석을 떨었어.”

- 함남 북청 출신인데 언제 월남하셨습

니까?

“광복과 함께 석방된 뒤 고향으로 가서 열 달쯤 지내다가 1946년 6월 단신 월남,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데 금세 돈이 떨어지는 게야. 배가 너무 고퍼 고향으로 가고 싶었지만 공산치하로 들어가기 싫더군요.”

- 조 원로회우는 본회 회우 가운데 유일하게 애국훈장을 수상하셨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기사를 거쳐 편집위원을 끝으로 언론계를 떠나셨는데 추억에 남는 일화는?

“1960년부터 72년까지 취재기자로 혁명정부 국가재건최고위원회와 국회 등을 취재했던 일이 새삼스러워요.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뛰었지. 언론계를 떠난 뒤 울산건설 상임고문으로 10여년 근무한 일, 독립기념관에서 독립운동사의 일환으로 대화, 녹음, 사진을 덧붙여 단파 三球 수신기 제작과정을 재현한 일은 가슴 뿌듯한 일이야.”

- 후배 언론인들에게 덕담 한 말씀을?

“요즘 언론환경이 어렵고 안 좋은데도 열심이라 대견하지만 안쓰러워요. 그래도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매진해야

지. 욕먹지 않는 기자, 정도를 걷어가는 언론인이 돼야 해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국민이 바라는 뉴스를 제 때 제대로 정확한 필치로 전해줘야 해요.”

- 6·25 전쟁 이산가족으로서 통일에 대한 관점은?

“아버님은 흥남철수 때 선박 편으로, 동생은 육로로 따로 따로 월남해 서울에서 만났고, 고향엔 어머니와 막내 동생이 남았어요. 어머니에게 한동안 편지와 사진을 보내 드렸어요. 살아있다는 증표로 말이야(잠시 老顔에 思母의 빛이 서린다). 이젠 이산가족도 거의 다 세상을 떠났어요. 죽마고우로 서울에 있는 사람은 소학교 동창 김명운 前 청와대 경제수석 한 사람과, 중학교 동창 김명수 前 송실대 공대학장, 심봉섭 前 가톨릭 대학장, 이수호 前 서울대 사대교수 세 사람뿐이야, 그 외 모두 타계했지요. 남북통일은 민족의 염원이고 대한민국이 미래 선진부국으로 달려가는 길이라 꼭 이뤄져야 하는데, 남과 북 사이에 추진방법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안타까워요. 남과 북의 정치 이념과 민도(民度)의 차이가 너무 커요, 이를 좁혀야 하는데, 퍼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닌데...”

조 원로회우는 망백(望百)의 고령임에도 대한언론인회 원로회우, 光復會 회원,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이사 등으로 폭넓게 활동한다. 가끔 성당에 나가 마음 비우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주량은 제로, 왕년에는 100m를 11초 5로 달렸는데, 지금은 매주 월~금 5일간 하루 4km씩 꼬박꼬박 걷는다고 일상(日常)을 전한다. 이대 출신 수원 사람(부인 홍소희 여사)과 결혼하고 2남 1녀 낳았다. 아들딸은 가정을 이루어 분가했고, 평생의 반려자로 해로하는 아내가 고맙기 한량없단다. “평생 언론창달에 헌신한 대한언론인회 회우 여러분 건강하세요!”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4]

글:유한준 편집위원 사진:이철영 편집위원

<http://www.giyr.org>

2015 경기도컵 국제요트대회

Gyeonggi-Cup International Yacht Race

일 자	시 간	경기일정 및 행사일정	장 소	비 고
7.31 (금)	17:30~	개회식 / 환영파티	전곡마리나 특설무대	
8. 1 (토)	10:00~	해상퍼레이드	경기수역	10시 출항
	11:30~	첫번째 경기신호	경기수역	
8. 2 (일)	10:00~	첫번째 경기신호	경기수역	
	17:00~	시상식 / 폐회식	대회본부	

2015.7.31(금) - 8.2(일) 경기도 화성시 전곡마리나

종목 : ORC부문, OPEN부문

주최



주관



후원



회우들이 펴낸 신간

민병문 회우 장편소설 ‘천국 쿠데타’

민병문 회우(전 동아일보 논설실장·헤럴드경제 주필)가 회수의 나이에 생애 첫 장편소설 ‘천국 쿠데타’ 1·2권을 펴냈다.

심신의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나이에 전업작가도 아닌데 장편소설을 낸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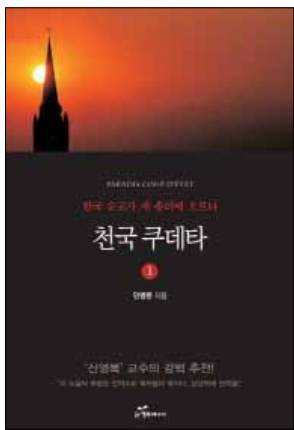
소설 발문을 쓴 성공회대 신영복 석좌교수는 “‘천국 쿠데타’는 모순조어이다. 쿠데타는 불법적인 권력탈취를 의미하고 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그 모순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에 관한 우리들의 생각을 휘저어 놓는다. 과연 엄청난 상상력의 빅뱅을 안겨준다.

이 소설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삶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등장인물들 모두 우리들에게 친근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편을 흐르는 서사가 너무나도 인간적이다.”라고 했다.

작가는 이 소설을 “천국의 존재를 확신하며 거기 얹힌 지구촌 인사들의 열망과 부조리를 옴니버스 식으로 묶은 것”이라고 말하며 “대부분 인물이 성경 속에, 또는 천문학자로 실재하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역사적 사실이 20%, 픽션이 80%쯤 된다”고 밝히고 있다.

소설의 줄거리는 천국도 지구촌 통치기구처럼 총리와 국회의장, 감사원장이 하느님을 모시고 마치 입헌군주제처럼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데 2,000년간 장기 집권해온 야고보 총리가 쿠데타 직전 탄핵으로 물러나고 한국 순교자 출신 정약종 아우구스티노가 제2대 총리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은 신·구약 성서의 역사적 인물을 비롯, 세기의 과학자, 한국 기독교 계보에 오른 인물 등이 망라돼있다.

하늘나라를 포함한 우주와 지구를 오가는 광대한 세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작가의 천국 발상은 인간의 삶의 연장선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흥미

롭다.

민 회우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명실상부한 최장수 논설위원과 주필 경력을 가진 언론인 반열에 올라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다.

중학교 시절 당시 학생 잡지로 인기를 끌었던 ‘학원’지에 ‘북간도’의 작가 안수길(1911~1977) 선생이 산문을, ‘나비와 광장’의 김규동(1925~2011) 시인이 시를 추천하면서 문학과와의 인연을 갖고 있었다. 고회를 2년 앞둔 2008년엔 ‘국제 문예’를 통해 시인으로 공식 등단했다. 지금까지 두 권의 시집과 한 권의 외국시집을 번역 출간했다.

소설을 쓰는데 영국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스웨덴의 과학자며 철학자, 신학자인 에마누엘 스베덴보리(1688~1772)의 ‘영계인간’이란 책을 참고했다는 작가는 “무엇보다 국제 섬유저널 외신부장인 막내딸의 자료 제공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소설 ‘천국 쿠데타’는 독특한 상상력의 세계를 펼쳐 보이며 종교라는 무거운 주제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출판사 로고]

〈도서출판 행복에너지·각권 15,000원〉

신동철 회우 自敍 ‘그해 겨울밤’

‘그해 겨울밤’은 멋진 필치로 엮어낸 신동철 회우의 자서(自敍)이다.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처럼 소박 하되 아름다운 어휘들을 골라 그 어렵고 힘들었던 38선을 넘던 애기들을 잔잔한 감동을 주면서 펼쳐내고 있다. 저자는 추억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묶었다.

‘그때, 한탄강물은 명경지수(明鏡止水)였다’ ‘아버지의 고종명(考終命), 그리고...’ ‘천지불인(天地不仁)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그리고 권말 부록으로 저자의 ‘신문은 죽어서도 말한다’ 출판 기념회의 뒷이야기를 실었다. 이중 가장 큰 비중은 302페이지의 이 책에서 167페이지를 할애한 ‘그때 한탄강물은 명경지수(明鏡止水)였다’이다. 이글은 1947년 ‘칠흑같이 어둡던 그 겨울밤’ 두 살 위인 형과 함께 열 살 난 저자가 걸어서 38선을 넘어 30여 시간 만에 주소조차 모르는 서울에 미리 정착한 부모형제를 찾아가던 ‘인간승리’의 기록이다

아버지에 이어 큰형 그리고 동생들을 데리고 어머니가 ‘그해 봄’ 서울로 떠난 뒤 작은 형이 기획하고 저자가 따라나선 ‘그해 겨울’ 38선을 넘는 모험으로 이 책의 첫 이야기는 시작 된다.

그날 밤 형제는 소련군이 지키던 연천역을 슬기롭게 빠져 나가 전곡으로 향했으나 길을 알지못해 철길을 따라 걷는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열 살 때까지 고향에서 자라고 크면서 느꼈던 여러 이야기들을 누에가 실을 토하듯 반추해 삽입한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책의 끝장까지 이어지면서 책 전체에 큰 줄기로 흐른다.

아버지가 해방 후 경찰서가 치안대로 바뀌면서 김화 치안대장이 됐다가 소련군 진주 후 고생 했던 일, 광주학생 만세 사건 다음해인 1930년 1월 18일 정주 오산 고등학교 학생회장으로 만세



사건을 주동해 신의주 형무소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야기, 1960년 7월 제 5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일, 1974년 12월에 시작된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때 1단 크기의 광고를 냈고 한겨레 신문 창간 공모주에 참여해 창간 독자가 됐다 ‘한겨레의 목표가 뭔지 알 수 없어’ 끊은 이야기 등 아버지의 큰

모습을 보여 준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저자 형제는 도보로 한탄강에 도착, 18살 정도의 어리고 키 작은 38경비대원의 도움으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 그때 배 위에서 본 한탄강물을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수정체보다 더 맑은 투명체였다. 흐르는 강물이 아닌 조용히 머물러 정지(靜止)해 있는 명경지수(明鏡止水)였다’

형제는 동두천에서 서울행 열차를 타고 저녁 무렵 청량리역에 도착, 역 광장 부근에서 공산치하 모든 것을 빼앗기고 탈출해 역마차 차장 일을 하는 김화읍 부잣집 아들인 고향 형을 만나 - 그 형은 이미 알고 있던 - 총무로 4가 부근 적산 단층집에서 부모님을 만난다.

저자의 모친이 돌아가기 일 년 전 한 식당에서 형제에게 소주잔을 권하면서 ‘그해 겨울밤 너희 형제가 38선을 넘어왔길래 말이지 어떡할 뻔 했어.’ 라고 대견해 하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그리면서 저자의 지난날들을 모두 정리한 뒤 대한일보 폐간과 관련한 저작 ‘신문은 죽어서도 말한다’ 출판 기념회 뒷이야기를 담은 권말부록으로 넘기고 도미(掉尾)를 장식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칠십 년 전 아득한 옛 이야기들을 어제 일처럼 기억해 내는 저자의 기억력에 놀라고 글 솜씨에 다시 한 번 놀란다. 특히 저자가 외병 후 이런 좋은 글을 쓴 노력과 용기 그리고 글 사랑에 박수를 보낸다. [출판사 로고]

〈중앙북스(주) 302쪽·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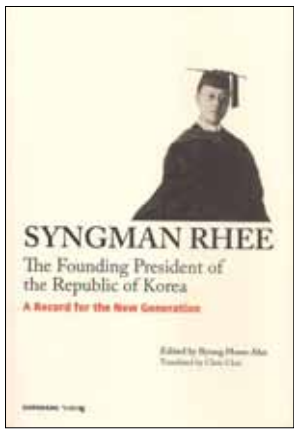
이병대(본회 회우)

안병훈 회우 ‘SYNGMAN RHEE’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생애를 영문으로 엮은 책을 안병훈 회우(통일과나눔재단이사장)가 펴냈다. 이 책은 안 회우가 금년초 국내 청소년들을 위해 만든 ‘건국대통령 이승만의 생애’를 영역한 것으로 외국인들과 해외동포 자녀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출간한 것이다.

이 책은 239페이지에 걸쳐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생애, 독립운동과 건국 그리고 6·25전 북진 등 나라사랑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초대대통령이요 건국대통



령인 그의 생애를 읽으면서 과연 이승만 없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올해 광복70주년과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기를 맞아 출간된 이 책은 특히 219장의 사진과 자료를 수록, 이승만 박사의 생애와 업적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안병훈 회우는 “평소 대한민국 초대대통령 이야기가 담긴 영어로 된 서적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왔는데 제 오랜 소망과 집념이 실현된 결과”라고 말했다. [출판사 로고]

〈도서출판 기파랑 발행·8,500원〉

곽찬호 회우 ‘한국경제 발전시대’

곽찬호 원로회우가 〈한국경제 발전시대〉 제2판을 발간했다.

2014년 8월에 발간한 제1판은 2012~2013년까지의 해설집이며, 이번 제2판은 2014~2015년 6월까지의 해설집이다.

저자는 1956년 말부터 일간 통신사 및 신문사 경제부기자로, 1973년부터는 일본 섬유경제 일간 유력지인 섬연(織妍·SENKEN)신문사 주재기자(현재는 고문, 논설위원 겸임)를 겸직하면서,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한 해설 및 기사를 국어와 영어로 작성, 현재까지 국내 및 외국신문에 지속적으로 기고, 보도해왔다.

발간사에서 언급했듯 저자는 경제기사는 근거 및 사실주의, 정확성이 생명인 만큼 완벽한 취재가 필수, 역사적 자료로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취재해 왔다고 했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은 〈한국경제 발전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 로고]

로 취재해 왔다고 했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은 〈한국경제 발전시대〉를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판사 로고]

‘전쟁영화’ 넘어 선 몽클한 휴머니즘

영화 ‘연평해전’ (감독 김학순)은 온 국민에게 국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치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 이 영화는 2002년 서해에서 한국 해군 참수리 357정과 북한 해군 함정과의 연평해전을 소재로 다뤘지만 전쟁영화의 범주를 넘어선 가슴 몽클한 휴머니즘이 깔려있다. 어쩌면 분노와 슬픔의 카타르시스인지 모른다. 그래서 나는 이 영화를 본 후 예술성·작품성·완성도 등등의 영화적 평가는 따지지 않기로 했다. 영화 중반 이후 북한 함정의 기습공격을 받고 한국 해군 참수리 357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잘린 수병의 다리가 갑판위에 외롭게 떨어져있고 기관포로 응사하던 한국 수병의 가슴에선 선혈이 군복을 적셨다. 내 뒷좌석의 젊은 여성 관객은 이때부터 체면과 부끄러움도 잊은 채 소리 내며 울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북한 해군의 이상동향을 미리 감지하고 대책을 상부에 건의했지만 적이 발포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사격하지 말라는 ‘교전수칙’에 분노했고, 꽃보다 아름다운 수병이 죽은 마당에 월드컵 결승전을 관람하러 일본으로 떠난 한국 대통령과 참수리 357호가 침몰하고 수병이 전사한 톱뉴스를 월드컵 경기 중 개방송 화면 자막으로 처리한 역사인식이 슬펐고, 부상당한 한상국 하사가 자신을 치료한 위생병 박동혁 상병에게 “배는 내가 지킬 테니 너는 사람을 살려라”는 말에 감격했다. 영화 ‘연평해전’은 13년 동안 역사의 깊은 무덤에 유폐됐던 제2서해교전을 햇빛이 비친 수면위로 건져 올렸고 순직으로 가볍게 처리해버린 6명 전사자의 명예와 애국심을 회생시켰다. 이것만으로도 평단의 무관심 속에서 개봉 한달여 만에 6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기에 충분했다.

2002년 대한민국의 6월은 온 나라가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다. 서울광장 등 대한민국의 모든 광장은 ‘붉은악마’의 붉은 물결로 도배했다. 참수리 357 정에서도 한 수병이 갑판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기대어 텔레비전 안테나 방향을 조절하면서 독일과의 결승 진출전을 시

영화 ‘연평해전’을 보고



김 화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청할 정도로 월드컵 열기는 광적이었다. 대통령을 비롯한 온 백성의 영혼이 월드컵에 팔려있었다.

남한이 월드컵 축제분 위기에 들떠있을 때, 북한 해군은 서해에서의 도발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북한 해군 군관들은 꽃게잡이 어선의 어부로 위장해 NLL을 넘어와서 참수리 357정에 일부러 붙잡힌다. 북한 군관들은 참수리 357의 내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운영하 정장의 심문에 “남한에서는 어부를 이렇게 험하게 다루느냐”고 당당하게 큰 소리 친다. 윤 정장은 북한 어부들의 태도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본부로 연행하겠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본부 책임자는 “월드컵 기간에 문제 일으키지 말고 송환하라”고 명령한다. 그 후 본부회의에서 윤 정장은 북한 해군의 심상치 않은 동향을 보고하고 북의 도발이 일촉즉발인데도 북이 발사한 다음 응사한다면 우리 함정은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항변한다. 북한 해군은 6월 27, 28일 이틀 간 암암리에 기동훈련을 했다. 그러나 상관은 ‘교전수칙’을 지키라고 일관되게 되풀이한다. 윤 대위는 거듭 항변하지만 묵살된다. 윤 대위의 동기생인 여군 최 대위는



영화 ‘연평해전’ 포스터.

“아버지처럼 바른 말 하다가 대위에서 제대하고 싶나. 윤 대위는 승진도 생각하라”고 자제를 당부한다. 윤 대위의 아버지도 해군 장교였다. 그러나 소신대로 행동하다 대위에서 예편됐다. 아버지는 자신의 못 이룬 꿈을 아들 윤 대위가 이루어주길 바랐다. 윤 대위가 전사한 후 아버지는 안산 집 벽에 걸어둔 소령으로 추서된 하얀 해군 정장을 붙잡고 터져 나오는 울음을 속으로 삼키는 장면은 슬픔의 카타르시스였다.

6월 29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과 터키의 3~4위전이 열리는 날이다. 북한 해군은 D 데이다. 한국 해군의 ‘교전수칙’ 약점을 알고 있는 적 함정은 NLL을 넘어 참수리 357로 속도를 더하며 접근한다. 적 함정의 도발을 본능적으로 느낀 윤 정장은 긴급 상황을 본부에 알린다. 본부에서는 여전히 교전

수칙을 지키라며 ‘차단’만을 지시한다. 마침내 참수리 357정과 북한 함정이 11자 형으로 뒀을 때 북한 함정은 참수리 정을 향해 발포했다. 북한 함정장은 참수리정에 붙잡혔던 위장한 어부였다.

적의 발포로 시작된 30분간의 서해교전. 영화에서도 실제 교전처럼 30분간 해전 신이 전개된다. 참수리 357정의 조타실이 직격탄을 맞고 갑판에는 잘린 다리 한 쪽이 나뒹굴고, 전기가 꺼지고, 온 몸에 총알을 안은 수병이 붉은 피로 싸인 채 힘없이 쓰러진다. 기관포 사수는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적탄에도 아랑곳 않고 기관포를 쏘면서 “그만 쏘라! 시팔놈들아!” 절규하면서 숨을 거둔다. 한상국 하사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항상 미안해하는 아내의 사진이 든 사진 케이스의 쇠줄로 마비 증세가 있는 한 쪽 손목을 키에 묶고 윤 정장의 명령에 따라 키를 돌린다. 위생병 박동혁 상병은 배안을 휘저으며 부상병을 치료하다 파편을 맞고 쓰러진다. 한 하사는 실종되고(나중에 물속에서 건진다), 윤 정장도 전사한다.

6명 사망, 19명 부상. 참수리 357정은 남하하다 침몰한다.(나중에 인양했다) 박동혁 상병은 온 몸에 파편이 박혀 국군통합병원에서 70여일간 투병하다 숨졌다. 박 상병이 숨진 직후 병어리 어머니(실제는 정상인)가 인공호흡기를 아들의 가슴에 대고 절규하는 장면은 슬픔을 넘어 분노했다. 영화 ‘연평해전’을 보면서 왜 그렇게 가슴에 분노가 끓임없이 치밀어 오르는지.

영화를 보면서 분노를, 영화관을 나와서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2002년 국민은 월드컵에 영혼을 팔았고, 그 후 13년간 위장된 평화를 위해 참수리정 비극을 수장시켰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젊은이들을 망각했다. 숨진 6명의 수병은 아직도 전사가 아닌 순직이다. 이런 나라에서 누가 국가 안보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는가.

‘국가 안보를 위해선 긍정적인 방법 이든 부정적인 방법이든, 영광스러운 것이든 치사한 것이든 다 가치 있는 것이다’. 마키아벨리가 한 말이다. [4]

해마다 8월은 돌아온다. 올해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그러나 8월은 광복의 달이지만 국치의 달이기도 하다. 8월 29일에 조선 왕조가 일제(日帝)에 의해 국권을 빼앗겼던 것이다.

해마다 8월이면 우리는 자주독립의 소중함을 새삼 절감하게 된다. 따라서 8월에는 나라를 되찾은 기쁨을 되새기기보다는 다시는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된다는 결의를 굳게 다져야 마땅할 것이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왕조는 어찌하여 나라를 빼앗겼던가. 집권층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국제정세에 어두웠기 때문이다. 개국 이후 500년 동안 허약한 문치(文治)에 흘러 국가지도자가 국리민복(國利民福)과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외면한 탓이었다. 집권층의 형편없는 리더십에 더해 국론이 극단적으로

8월에 생각한다

분열한 탓이었다.

국가안보와 국리민복을 도외시하는 정권은 왕조든 민주정부든 이미 국가경영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엄중한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유비무환(有備無患)·무비유환(無備有患)의 교훈을 잊는다면 언제



박명근

·본회 회우
·전 MBC 부국장(속초지사장)

또다시 망국의 나라로 굴러 떨어질지 모르는 일이다.

8월은 광복의 달이기도 하고 국치의 달이기도 하지만, 이보다 1355년 전에는 백제가 망한 역사의 달이기도 하다.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받아 웅진성(공주)으로 달아났던 의자왕(義慈王)과 태자 효(孝)가 항복하여 백제가

이다. 이보다 앞서 7월 13일 백제의 왕성 사비성(부여)이 함락되자 신라와 당의 18만 대군이 백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고, 아비규환의 피바다 속에서 도성은 7일 낮 7일 밤 동안 철저히 불타고 무지막지하게 파괴당했다.

그해 음력 8월 17일 소정방(蘇定方)은 의자왕과 왕자 4명, 대신 93명, 남녀 백성 1만 2천 807명을 포로로 이끌고 서해를 건너갔다. 김부식(金富軾)은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끝내면서 이렇게 썼다.

‘백제는 말기에 이르러 소행이 도리에 어긋남이 많고, 또한 대대로 신라와 원수가 되고, 고구려와 친해 신라를 침략하며 당 고종은 두 번이나 조서를 내려 그 원한을 풀도록 했으나 겉으로는

15면으로 이어집니다.

고령자의 건강 리포트 ④

2주 활동 않으면 근력-근육량 크게 消失

학술지 재활의학지(Journal of Rehabilitation Medicine)는 최근 단단하고 힘 있는 근육을 가진 사람도 2주 동안 육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상당한 근육량과 근력(筋力)이 소실(消失)된다는 덴마크 코펜하겐대학 생물의



이광영

·본회 논설위원
·전 한국일보 편집위원
·한국 골든에이지 포럼 상임이사

전체 근육량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감소한다. 젊은이는 나이드는 사람에 비해 한쪽 다리에 평균 32온스 정도(약 900g) 더 많은 양의 근육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젊은이도 2주간 움직이지 못하게 되면 평균 한 다리에 약 17온스 정도

(약 480g) 근육량이 줄어든다고 했다. 나이드는 사람은 같은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으면 젊은이보다 적은 9온스 정도(255g)의 근육량이 줄어든다. 즉 근육량이 많을수록 움직이지 않으면 더 많은 양의 근육이 소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겔소 교수는 근육량이 많을수록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 소실이 그만큼 더 많아진다고 이 운동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부상을 입어 운동을 하지 못하고 쉬게 될 때 운동능력이 낮은 사람이 쉬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근육이 소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할 때 쉬었던 기간보다 3배의 기간 동안 운동을 해야 전과 같은 수준의 근육량과 근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비록 나이드는 사람 쪽이 근육량이 덜 소실된다고 해도 운동능력은 나이드는 사람이 젊은이보다 더 낮아진다고 근육 소실은 나이드는 사람에게 더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쳐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낮추게 된다고 설명했다. [출처]

과학부(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및 건강한 노화센터(Center for Healthy Aging) 비겔소(Andreas Vigelsoe) 교수의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비겔소 교수는 실험 결과 활동적인 고령자라 해도 2주간 육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근력이 30%나 소실되어 수십 년 더 나이 먹은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며 좌식 생활을 해도 25%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부상이나 질병 혹은 휴가로 쉬고 있을 경우 근력 소실정도가 더 커진다고 했다.

비겔소 교수는 남성의 경우 육체적인 활동을 하지 않아 나타나는 근력 손실은 젊은이와 고령자가 비슷했다면서 2주간 한쪽 다리를 고정시키면 젊은이는 근력의 1/3, 나이드는 사람은 근력의 1/4이 소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젊은이는 2주간 활동을 못하게 되면 40~50년 나이가 더 든 사람과 같은 수준의 다리 근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14면에서 이어집니다.

따르면서 속으로는 어겨 대국에 죄를 지었으니 그 멸망 또한 당연하다고 하겠다.’

백제는 과연 김부식의 말대로 대국(당)에 죄를 지었기에 망해 마땅했을까. 백제 망국사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가. 당시 백제의 국세는 5방 37군 200여성, 76만 호였다. 76만 호라면 인구 3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러한 국세로 단 한달은커녕 겨우 일주일도 제대로 버티지 못하고 망국의 치욕을 당한 것이다.

무왕(武王)의 태자였던 의자왕은 젊어서는 결단성이 있고, 효성이 지극했으며, 형제간에 우애가 깊어 ‘해동증자(海東曾子)’로 불렸다고 한다. 641년 3월, 무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의자왕은 재위 15년(655)에는 상좌평 성충(成忠)을 보내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신라의 30여 성을 빼앗을 만큼 위세를 떨쳤는데, <삼국사기>는 바로 그해부터 매사가 빛나가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즉 그 해에 태자궁을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수리하고, 궁궐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으

며, 그 이듬해에는 주색에 빠져들어 종간하는 성충을 옥에 가두니 그때부터 간하는 신하가 없어지고 나라는 기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또 김유신(金庾信)이 모략전으로 보낸 간첩 조미압과 좌평 임자, 요녀 금화 등에 의한 내부 분열도 백제 멸망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국왕의 리더십 부재에 국론의 분열, 안보불감증 등이 망국을 불러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나당연합군이 물밀 듯이 쳐들어오자 때는 이미 늦어 계백(階伯)과 5천 결사대의 동부전선도, 의직(義直)의 서부전선도 모두 무너져버리고 123년의 영화를 자랑하던 사비성은 맥없이 함락되고 말았으니 이 또한 무비유환의 냉혹한 교훈이다.

국가안보란 조그만 구멍이 생겨서도 안 되는 법이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고 미비한 점이 있으면 시급히 보완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시 중단된 정전상태에 있다. 잠시라도 국가안보의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역사상 모든 나라가 망한 원인은 내부외환(內憂外患)이라는 교훈을 망각해선 안된다. [출처]

원로에세이 — 어제 오늘 사이

자기와의 싸움

김경래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유산남기지않기운동
실무책임



이 세상의 가치들을 과감하게 상대할 수 있는 특권과 용기를 가진 사람을 고급인간이라 한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가 재물(돈)이다.

돈(재물)을 취득하기 위해 사람들은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하기도하고, 그와 반대로 불로소득을 취하기 위해 불법행위나 정치권력과 유착 행위를 자행한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서의 재물은 그 자체가 귀한 것이다. 그러나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불의한 재물일 수밖에 없다.

그 불로소득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의미 없이 상속되는 ‘유산’이다. 우리는 이 유산 때문에 저질러지는 비극들을 수없이 보아왔다.

혈육 간의 갈등은 물론, 법정 투쟁과 살상사건까지 날게 되는 사례들과 전직 대통령들의 몰락을 목격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선포한 성경말씀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재물(돈)에 대한 올바른 자세 확립이 요구되었고, 이를 시민운동 차원의 애국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들이 조용히 결집되어 왔다. 그러나 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자기와의 싸움이며 스스로의 고백이기에 자주, 자율, 자립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유산남기지 않기 운동은 한국개신교가 선교100주년을 맞는 1984년 이른 봄에 싹트게 되었다.

매주 화요일 아침마다 모이는 전문직업인들의 조찬모임에 감사로 나온 한경직 목사와 서울대 교수 손봉호 박사는 평균 연령 50세 가량의 회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웰빙 귀족으로 냉소의 대상이 되느냐, 충성스런 청지기로서 아름답게 나타나느냐는 오직 재물에 대한 가치판단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전제하고 유산의 과감한 사회 환원을 호소했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특강을 경청한 실업인들과 전문직업인들 중 일부는 바로 그날로부터 두 강사의 도전에 응답하는 실천운동을 모색했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합의된 운동이 “유산남기지 않기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개방할 문호도 가로막을 칸막이를 두지 않기에 누구나 삶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전개하는 자율적인 특징을 지닌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인 것이다. 우선 유연장을 써놓고 살자는 것이다.

2015년 현재 등록회원은 1천 3백여명

에 달한다. 그 중에는 국외거주 실업인과 80여명의 여성이 포함되어 있다.

회원의 60%는 기업, 경영인이며 40%는 전문직업인, 예컨대 변호사, 판사, 교수, 의사, 약사 및 문화예술계 인사들이다.

대기업체의 중진도 있으며 중소기업 자영업자들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유산남기지 않기 운동의 취지에 찬동하여 자원 가입한 분들이며, 친구들의 권유에 따라 회원이 된 분들도 적지 않다.

가입하기 전에 아내와 자녀들과 의논한 경우도 있었고, 말없이 신청한 분들도 있었다.

식구들과 의논한 경우 ‘오히려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는 반응이 있었는데 가하면 다소 저기압 상태에서 묵시적인 찬동을 얻어낸 사람도 있었다.

소유의 사회 환원은 전적으로 회원 각자의 자의에 의해 그 규모나 대상, 그리고 환원 또는 기증하는 시기가 결정된다.

몇 차례의 간담회 끝에 사회 환원에 대한 대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

‘직계 유족들의 절대 수요를 충족시킬 재화는 보존한다.’는 것이었다.

회원들 중에는 ‘유언장에 써놓고 사는 것보다 남은 연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동원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지극히 선한 일을 위해 회사함이 옳다’는 분들도 있다. 그리하여 자기의 소유를 정리하여 복지법인을 설립한 회원도 생겨났고, 상당한 금액을 모교의 장학재단 설립 기금으로 회사한 분도 있었다.

회원들 중 발족한지 30여년이 지난 지금 별세하신 분이 70여명이나 된다.

그 중 유 모 박사는 미망인에게 가혹한 채를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학교 법인에 귀속시키도록 유언했었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전에서 여생을 마친 백 모 사장은 그의 아내와 유자녀들에게 그가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을 3등분하여 3분의 2를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이 밖에도 마스크에 보도되지 않은 유산의 사회 환원 또는 기증사례들이 전해오고 있으나 운동의 실천 강령에 따라 대외적인 공개나 홍보를 삼가고 있다.

유산남기지 않기 운동은 배은망덕한 현대인의 삶을 감사와 보답의 삶으로 전향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을 것을 확신한다. 그러기에 누룩처럼, 향기처럼 번져나가기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한 회원들이 얼마나 앞장서서 본을 보이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출처]

김한영 원로회우 별세

김한영 원로회우가 지병으로 6월 25일 별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6월 27일 발인했다. 향년 84세. 1932년 경기 파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중앙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1961년 대한통



신 취재부 기자로 언론계와 인연을 맺었다. 1964년 일간경제신문사 사회부(뒤에 현대경제일보) 기자로 활약하다 1967년 언론계를 떠나서는 주식회사 黃工務社 대표이사 사장직을 역임했다.

사우회 소식

산클럽 주관 첫 해외탐방

동아일보 동아일보 사우회(회장 김태선)는 산클럽(회장 성낙오·대한언론 편집위원장) 주관으로 첫 해외탐방 행사를 가졌다. 이번 해외탐방은 지난 7월 2일부터 4박 5일 동안 백두산을 북파와 서파 코스로 두 차례에 걸쳐 오르고 지안(集安)에서 고구려 광개토대왕비와 장수왕릉으로 알려진 장군총을 둘러본 뒤 압록강에서 보트를 타고 북한 땅을 바라보는 순으로 진행됐다. 동우회는 계속 국내외 탐방 프로그램 마련, 많은 동우들의 화합과 우의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7월 20일자 동우회보 43호는 백두산 탐방기를 상세히 전하였다. 이 밖에도 본회 자문위원인 김광희 회우의 ‘世情낙수—메르스百態’와 최명우 편집위원의 ‘세계 골프계 못말리는 코리아 女風’ 기고가 실려 있으며 남시욱 본회 회우의 力著 ‘6·25 전쟁과 미국’ 서평과 민병문 본회 회우의 장편소설 ‘천국 쿠데타’ 관련 인터뷰가 실려있다. 동우회는 또 지난 4월 제1차 자선바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데 이어 후속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

사우회보 30호 발행

서울신문 서울신문 사우회는 6월 30일자 회보에 김영만 서울신문 사장 내정 기사를 머리기사로 다루고 2면엔 7월 17일 퇴임한 이철휘 사장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서울신문 사우회 카페 개설 소식, 15차 봄철 사우회 걷기 대회(3면), 산악회, 골프동호회, 낚시, 바둑, 당구 등 동호회 소식이 또한 다채롭다. 5면 사우회 초대석엔 ‘여성 권익 증진에 힘쓰는 여기자들의 멘토’ 신동식 대한언론인회 여성분과위원장인 소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우회보 6월호 발행

연합뉴스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는 연합뉴스 사우회보 연우회보(발행인 김덕성) 6월호가 나왔

다. 6월 25일자로 나온 연우회보는 4·6배판 8페이지 안에 다채로운 사우회 소식을 싣고 있다. 1면 머리엔 2015년도 사우회 정기총회 소식을 비롯, 사우회 집행부, 고문단, 연합미디어그룹 임원진 오찬 소식, 연합뉴스산악회 동정, 연합뉴스 주최 전국 다문화 가족 배드민턴 대회, 연우초대석(백승국 사우편) 등이 돋보인다.

한우회보 16호 발행

한국일보 한국일보 사우회(회장 제재형)는 7월 10일자로 한우회보 16호를 발행하고 한국일보 재창간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한국일보 사옥을 서울 세종대로 와이즈타워로 이전한 소식과 이원홍 전 문공장관 인터뷰 기사(3면)가 돋보인다. 또 ‘한국일보를 빛낸 사람들’(2면)난에 김용장 전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의 면면을 소상히 소개했다. 오인문 본회 회우의 근황도 눈길을 끈다.

‘좋은 상조’와 상조서비스 제휴

KBS KBS사우회(회장 전봉찬)는 ‘좋은 상조’(주)와 상조서비스를 제휴, 6월 8일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상을 당한 KBS사우회 회우가 사우회 사무국이나 좋은 상조(주)에 상조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문 장례지도사가 상례절차 안내와 편의 제공, 장의 용품 등을 제공 받게 된다. 비용은 사전 계약에 의해 선·분납하거나 장례 후 후불 등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우회보 35호 발행

SBS SBS 사우회(회장 김수웅)는 지난 7월 1일자로 사우회보 35호를 발행했다. 사우들의 활발한 재능기부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한 이번호는 70여명의 사우들이 참여한 무의도 야유회, 방송 3사 바둑대회, 회우동정 등이 실렸다.

퇴직언론인 센서스 사우회협조로 박차

대한언론인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중인 퇴직언론인 센서스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대한언론인회 회원을 비롯한 각 언론사 사우회 회원명단을 중심으로 전문가에 의뢰해 작성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실시한다. 설문지는 8월 초 발송되며 조사결과분석보고서는 10월 말 나올 예정이다.

퇴직언론인에 대한 실태조사는 퇴직언론인 유효 표본 1,000명을 목표로 54개 설문 문항을 통해 퇴직 이후의 커리어, 노후대책, 라이프스타일 등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사회 기여방안, 퇴직언론인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착수한 이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 대한언론인회 이사 등 임원들이 앞장서고 있으며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號外’에 비친 세태

이승만 대통령 서거 보도

위성통신도, 인터넷 스마트폰도 없던 50년 전 1965년에는 국제전화와 전보, 텔렉스가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였다.

하와이에서 UPI와 AP 통신이 타전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서거’ 소식은 제일 먼저 동아방송(DBS) 긴급뉴스로 장안에 알려졌다.

이어 동아일보는 ‘號外’를 발행해서 서울 도심지에 뿌렸다. 1960년부터 다시 시작된 호외전쟁에서 동아는 선두그룹을 유지했다.

신문들이 경쟁적으로 호외를 발행해서 광화문 종로 서울역 남대문 을지로 일대에 신문사 차량을 이용해서 거리에 뿌렸다. 일부는 배달소년들이 한 묶음씩 안고 “號外요…號外요…”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호외는 생명이 무척 짧고 발행부수가 적어 발행한 신문사들도 따로 보관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호외에 실린 기사가 이어지는 조석간 신문에 옮겨지기 때문에 대부분의號外가 쓰레기통으로 사라졌다.

‘이승만 대통령 서거’ 호외도 50년이 지난 오늘까지 남아있는 것이 몇 장이나 될는지…

편집국 바닥에 버려져있는 1장을 접어서 책갈피에 보관했다. 어떻게 색이 변하고 종이가 부스러지려 한다.



동아일보 1965년 7월20일자 호외지면.

동아일보 1965.7.20. 호외

李承晩 박사 逝去

19日 午後7時35分 (한국시간)
腦溢血로 마친 享年90歲

[호놀루루 19일 UPI特電 東洋]

李承晩 前 大統領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 오후7시35분 ‘호놀루루’의 ‘마우나라니’ 병원에서 뇌일혈로 逝去했다. 한국독립을 위해 全生涯를 바쳐온 李博士가 19일 90歲를 일기로 서거했을 때, 그의 病床곁에는 ‘프란체스카’ 부인과 養子 李仁秀씨가 있었다.

[프 女史에 弔電]

박정희 대통령은 19일오후 李承晩 前大統領의 서거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표명하는 弔電을 未亡人인 ‘프란체스카’ 女史에게 보내는 한편 장례절차 및 그밖의 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협의 결정하도록 內閣에 지시했다고 申範植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朴大統領이 개인자격으로 ‘프란체스카’ 女史에게 보낸 弔電 내용은 다음과 같다. “逝去의 비보에 접하여 슬픔을 금할수 없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하고 고인이된 李博士의 명복을 빕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弔電에 國父이며 初代 大統領에 대한 예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개인적으로 弔意를 표한다고 했을 뿐이다.

韓重光 〈대한언론인회 이사〉



이동 수단의 혁명을 가져온 **원의 발명**



모바일 금융의 기준을 바꾸는 **원의 발명**



Real Mobile Bank i-ONE뱅크

스마트 금융 시대의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은행의 발명! Real 모바일 은행 i-ONE뱅크와 만나면 편리한 은행 업무부터 전문적인 금융서비스까지 금융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금융거래



모바일에서 바로
가입하는 금융상품



자산설계부터 지출관리까지
도와주는 금융매니지먼트



참! 좋은 은행

IBK기업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5-1403호(2015.06.09)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은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IBK기업은행 : ☎800-800-0119)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회우동정 가나다순

KBS교향악단 이사장 선임



권영빈(전 중앙일보 사장)회우= 지난 7월 8일 재단법인 KBS교향악단 이사장에 선임됐다. 임기는 3년. 권회우는 그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왔다.

통일나눔펀드 기부 약정



안병훈(통일과 나눔재단 이사장)회우= 7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통일과 나눔재단’ 주최로 열린 통일나눔펀드 출범식에서 각계 인사들로부터 기부를 약정 받았다.

퇴직언론인 센서스 자문



이보길(전 KBS해설위원)본회 회원사업위원장(사진좌)·이상호(전 경향신문 편집위원)본회 이사(사진우)=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과 대한언론인회가 공동으로 실시중인 퇴직언론인 센서스 자문위원으로 참여, 설문 문항을 검토 자문했다.

‘한미동맹’ 국제학술회의



이채주(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 이사장)회우=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한미동맹과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를 가졌다.

‘동락 60년사’ 집필, 출간



최병요(전 한국경제신문 편집위원)편집위원= 구 미전자공업고등학교의 60년 발자취를 집대성한 ‘동락 60년사’를 집필, 7월초 출간했다. 450쪽 분량의 ‘동락 60년사’는 이 학교 총동창회가 개교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최 편집위원은 계획안 작성에서부터 자료의 수집과 정리, 원고작성, 편집에 이르기까지 전 작업을 4개월 만에 마치고 출간했다.

‘정치개혁 국민운동’ 본회 회우 대거 참여

지난 7월 23일 창립1주년을 맞은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산하에 ‘정치 개혁 국민운동’을 발족, 상임대표에 본회 김진현 회우(전 과거처장관·전 문화일보 회장)를 추대했다. ‘정치 부패 척결을 최우선적 정치 개혁과제’로 내걸고 벌금 100만원 이상형 선고를 받은 정치인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한 이 ‘정치 개혁 국민운동’ 고문엔 본회 이재형 고문과 송정숙 회우가, 공동대표엔 최재욱, 박범진, 문명호, 도준호, 정일화 회우가 위촉됐다.

본회 이사회 상반기 결산보고

대한언론인회 제147차 이사회가 지난 7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실에서 열렸다(사진).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반기 결산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 등이 논의 됐다.



상반기 결산보고는 김성배 정기정 두 감사의 상반기 감사의견서에서도 지적됐지만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집행부가 연초부터 강도 높은 지출 억제와 수입 증대 노력 특히 1) 과감한 지출 억제. 2) 임원들과 일부 회원의 시의 적절한 협찬금 모금. 3) 회비 납부 독려로 전례 없이 양호한 실적. 4) 금년 1월부터 회장 관공비(50만원), 총무이사 수당(10만원) 전액 반납 등이 높이 평가됐다.

또한 향후 심화 될 것으로 보이는 제

로 금리 시대에 대비한 본 회의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것이 강도 높게 지적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가을철 문화탐방, 대한언론상 시상, 팔순회우 축하연 등 하반기 사업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금년 팔순(1935년생) 회우 축하연은 고회 때 축하금을 받지 못한 80세이상 회우에게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예우를 하기로 했다.

◀ 주소 변경 ▶

김원재 원로회우=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 101동 2609호 (롯데캐슬 베네치아) (우 100-899)

이철영 편집위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126 2동 907호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우 150-882)

신입회우 환영합니다 (가나다순)

김준길(金俊吉) 1940년 1월 20일 생



〈경력〉
서울신문 조선일보 한국일보기자(62~74), 문공부 전문위원(77~80), 문공부 홍보담당관, 주 미국대사관 공보공사, 연세대 국제대학원 강의(99~2000), 명지대 미국학 연구소 교수, 필리핀 아태대학 교수(현)

류종현(柳宗鉉) 1956년 5월 12일 생



주소 : 서울 강남구 선릉로126길 22 103-1702
전화 : 010-9105-1257

〈경력〉
MBC보도국 기자(84), 워싱턴 특파원(95~98), 걸프전 중군기자(90), 스포츠국 스포츠 영상부 차장 시사영상팀장(2006)

송정숙(宋貞淑) 1936년 10월 28일 생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신동아 아파트 6-106
전화 : 010-2211-2206

〈경력〉
서울 일일신문 문화부기자(62), 주간한국기자(64), 서울신문 문화부 차장(70) 문화부장(73) 논설위원(93), 보사부장관(93), 방송심의위원(81), 관훈클럽 총무(80), 관훈클럽 신영기금 이사장(93), 서울신문 고문(93~98)

최대훈(崔大勳) 1937년 1월 26일 생



주소 :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29길 91 202동 402호(사당우성아파트)
전화 : 010-2302-3940

〈경력〉
동화통신 기자(62~71), 대한일보 LA특파원(72), 합동통신 해외경제부장(76~80), 정우광고 대표(82)

입회비 · 연회비 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농협 056-01-105628 대한언론인회
(괄호 안 숫자는 납입연도, 2015년 7월 29일까지)

강병국 (15) 오근영 (15)
강성구 (14, 15) 유지호 (15)
구종서 (15) 이경식 (15)
권영국(44년생, 15) 이광영 (15)
김광섭 (14, 15) 이남규 (15)
김상준 (15) 이상갑 (14, 15, 16)
김선옥 (15) 이상근 (15)
김종범 (15) 이성호 (15)
김종하 (14, 15) 이정윤 (13, 14, 15)
김지용 (14, 15) 이종기 (14)
김한길 (15) 이종석 (15)
김한영 (15) 이종세 (15)
문준호 (14, 15) 이 철 (15)
박경석 (14, 15) 이태교 (17)
박응수 (15) 이흥기 (15)
배병휴 (14, 15) 이 휘 (15)
봉두완 (14, 15, 16) 전영우 (15)
설임윤 (14, 15) 장덕상 (14, 15)
송용식 (14, 15) 정덕교 (15)
송정숙 (입회비) 정용희 (14, 15)
신경식 (15) 정희준 (15, 16)
신동식 (15) 조규석 (15)
신정호 (15) 조덕연 (15)
안건혁 (15) 조봉균 (15)
안중우 (15) 조원석 (15)

협찬금 : 박동은 회우 = 30만원

최금녀 (15) 함정훈 (15)
최상완 (15) 호천웅 (15)
최연석 (13, 14, 15)
최종수(37년생, 15)
한광희 (14, 15)
한상규(16)

月刊 大韓言論

· 발행인 겸 편집인 김銀九
· 상임이사 겸 사무총장 鄭雲宗
· 주필 文明浩
· 편집위원장 成樂五
· 대외협력국장 黃貴根
· 발행처 (우)100-745 서울중구 태평로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hanmail.net
· 홈페이지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귀를 기울입니다 길이 좋아집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국민행복 100約을 통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 갑니다

2015년 고속도로 개통 및 착공 현황

구 분	구 간	연장(km)	개통(착공)시기
신규개통	충주~제천	23.9	'15.6
	울산~포항	42.1	'15.12
확장개통	냉정~부산	13	'15.6
	담양~성산	142.8	'15.12
	영동~옥천	7.1	'15.12
	안산~일직	10.0	'15.12
	양재~기흥	7.5	'15.12

구 분	구 간	연장(km)	개통(착공)시기
착 공	광주순환	10.3	'15(하)
	아산~천안	20.1	'15(하)
	남이~천안	34.6	'15(하)
	창녕~밀양	27.4	'16년
	포항~영덕	30.9	'16년

고속도로 건설은 계속됩니다!

미래형 자동차 기술, 친환경 자동차 부품 유라테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등 자동차 이그니션 시스템 제품 전문기업으로
성장한 유라테크는 품질혁신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저탄소 고연비차량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IGNITION SYSTEM MAKER – YURA TECH

■Stick Coil ■Platinum Spark Plug ■Iridium Spark Plug ■Spark Plug ■Glow Plug ■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

❖ Head Office & Plant : 070-7878-3500 ❖ YURA R&D Center : 070-7878-1000 ❖ www.yuratech.co.kr